

산업화에 따른 농촌사회 변화요인 분석 - 단위취락사회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적 방법으로 -

이풍길 · 류태영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교육과)

Industrialization and Change Factors of Rural Society in Korea

Lee, Pung-Kil · You, Tae-Yeoung

Dept. of Agri. Education, Kon-Kuk Univ., Seoul 133-701, Korea.

Abstract

The present study addresses to one of the central issues of rural developmental process, naimly that of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r motive power which best serves the ends of agrarian development and modernization. One of main concern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industrialization which sustained for the last two decades in Korea to rural sectors. The magnitude of socio-economic and value changes in each of the target village were examined and analyzed in a comparative perspectives.

Sunlinchon, Unkyoree, and Mukhyunree were selected as target villages all of which possess distinctive characteristics in many aspects especially from the points of settlement background, geographical situations, villagers'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al directions, i. e., from above and from below. In addition to literature review, questionnaire surveys, field observations,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The findings revealed an intimate inter-relationship between rural community and urbanization in the process of revolutionary industrialization. To some extent, thep attrens of and magnitude of changes in sample villages during the last two decades were not differ greatly from that of overall Korean rural sectors' changes--generally negative socio-economic and value changes. Of prime importance of the findings,

however, lies in the fact that there exist some of differences in changes among the target villages. Based on the findings, five suggestions are provided in conjunction with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al approaches and policies.

I. 서 론

1. 研究의 意義

지난 30여년간 한국 경제 사회 분야의 급속한 발전은 공

업화위주 輸出主導型 경제성장정책으로 대변되는 不均衡成長論, 工業 大都市 중심의 偏向的 開發戰略으로 대변되는 成長據點開發論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고 要約될 수 있다." 하지만 급속한 産業化 과정에 있어 우리나라는 地域 산업간 이중구조의 深化라는 副産物을 孕胎하였고 그 開發隔差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都市 工業部門에 대한 農村 農業

부문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계기로 農村地域도 많은 發展을 해 온 것이 사실이나 急速한 社會構造上的 變換期를 거치면서 오늘날 農業 農村은 “상대적 저발전의 악순환”²⁾, 開發 四角地帶, 사양산업, 敗北主義 意識 蔓延 등으로 特徵지워 질 만큼 劣惡한 상황에 直面하게 되었다. 다행히 최근들어 國際化 開放化 趨勢와 함께 도·농간의 開發隔差가 바람직하게 解消되지 않는 한 안정된 先進產業社會로의 持續的 發展을 계속해 갈 수 없다는 國民的 공감대가 形成되면서 農漁村開發을 위한 一大 轉換點을 摸索하여야 한다는 覺醒이 대두되고 있다.

農村開發을 위한 對策은 多角度에서 檢討되어질 수 있을 것이나 農村地域社會의 정확한 社會生態學的 特性과 社會經濟的 問題들에 대한 정확한 調查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어떤 農政關聯 政策手段도 기대할 만한 成果를 올리지 못하게 됨은 당연하다 하겠다. 특히 이제까지 農村分野의 研究에 있어 농촌의 全般的인 社會 經濟的 문제점들은 새마을사업과 連繫되어 비교적 활발히 연구되어져 왔다고 볼 수 있으나³⁾ 部落의 形成背景이나 立地條件, 發展推進主體등 각각의 聚落展開 發展過程上 特性이 다른 單位部落의 諸般 變化過程에 대한 檢討는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研究의 必要性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2. 研究의 目的

本 研究에서는 韓國社會가 產業化社會로 急速히 轉換되어 온 최근 20년간에 걸쳐 취락의 展開 發展 過程上의 特性이 각각 다른 單位部落을 中心으로 다음의 細部研究問題를

糾明코자 한다: 첫째, 事例研究의 方法으로 各 부락의 經濟, 社會, 文化 構造의 諸般 변화상과 變化要因을 살펴보고; 둘째, 比較分析의 方法으로 各 부락의 변화상을 全般的인 韓國農村社會의 構造의 변화와 連繫시켜 變化過程에 있어서의 共通性和 特異性을 農村社會學的 觀點에서 분석하고; 셋째, 이를 바탕으로 向後 長期的 農村開發戰略 및 發展方向 摸索을 위한 基礎的 方案을 提示한다.

3. 研究의 範圍와 制限點

本 연구에서는 農村 定住體系上의 基礎가 되는 ‘단위마을’을 研究對象으로 하였는데 이는 單位部落이 지닌 特性에 따라 그 展開過程이나 變化形態 또한 다를 수 있다는 前提下에 결정되었다.⁴⁾ 選定된 各 단위부락은 發展推進主體, 部落 形成背景, 地理的 位置, 部落構成員 特性 등 여러 觀點에서 각각 다른 特異性을 지니고 있으며 調查對象 부락들이 나타난 諸般變化는 다음의 範圍에서 考察되어졌다: ①人口 및 農業勞動力 構造 변화; ②社會 集團 組織 변화; ③經濟的 構造 변화; ④生活 文化 環境的 변화; ⑤意識 및 價値觀 構造 변화.

4. 研究 方法

(1) 調查對象部落의 選定: 부락별 地理的 與件과 形成背景 등 부락 展開 發展過程上의 差異點과 特異性을 기준으로 8개 部落을 調查 研究한 선행연구⁵⁾의 區分에 따라 本 研究의 目的에 부합하는 3개 部落을 選定하였다.

Table 1. 조사대상 부락의 특성과 조사기간

부락명	현 소재지	지리적특성	취락전개상의 특색	조사기간
선린촌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도시근교	종교적 신앙심을 바탕으로하여 정부지원없이 전체주민 스스로의 힘에 의한 농촌취락발전을 추구한 전형적인 주민공동체 중심의 상향식 취락전개 모형 부락	1993. 9. 17~ 10. 12
운교리	전라북도 남원군 대산면	산간부락	부락내 추진력 강한 지도자에 의해 발달된 협동조합조직과 새마을운동과의 연계를 통해 취락발전을 추구한 지역지도자 중심의 상향식 취락전개 모형 부락	1993. 12. 09~ 12. 20
묵현리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읍	산간부락 + 도시근교	새마을운동을 통해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이 가해진 시범부락으로 정부주도에 의해 농촌취락발전을 추구한 전형적인 정부주도 하향식 취락전개 모형 부락	1994. 1. 15~ 1. 29

(2) 文獻調査: 본 연구와 관련된 先行研究들의 結果調査가 實施되었으며, 2차의 統計資料 調査를 위해 韓國統計年鑑, 農林水産部統計年譜, 農協年鑑, 韓國社會指標, 京畿年鑑과, 部落所在地 邑 面 洞사무소, 市 郡廳 등의 公共機關에서 發刊한 關聯資料를 蒐集하였다.

(3) 面接調査: 2차적 統計資料를 통해 파악할 수 없는 變因에 관한 調査를 위해 關聯 指導者들과의 面談과 부락민을 對象으로 面接調査가 실시되었다.

(4) 資料分析 및 統計處理: 面接調査를 통해 蒐集된 1차 資料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 백분비, 빈도 등의 記述的 統計分析方法을 사용하였으며 分析 目的에 따라 前述한 部落 關聯 事務所에서 蒐集된 統計資料와 함께 比較 分析의으로 사용하였다.

II. 研究結果 및 分析

A: 선린촌 - 주민공동체중심의 상향식 부락발전모형 -

1. 善隣村의 沿革 및 自然環境變化

(1) 沿革: 선린촌은 單位部落으로서의 形成歷史가 짧은 편인데 住民共同體 中心의 理想村을 건설코자 뜻을 같이하는 人들에게 의해 1954년 경기도 광주군 구천면 길리⁶에 제 1 선린촌⁷이 設立되었는데 이후 서울시의 膨脹에 따른 都市計劃과 관련된 外的要因과 함께 內的要因으로 部落空間의 側面에서 飽和狀態에 이르러 더 이상의 部落發展이 不可能해져 1967년 廣州郡 東部面 泉峴里로 이주하여 제 2선린촌⁸을 建設하여 養鷄業을 中心으로 生産基盤을 조성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 産業化의 급속한 進展과 함께 제 2선린촌 역시

周邊地域의 都市化현상과 같은 부락 變化를 요구하는 여러 內外的 要因과 直面하여 隣接地域으로의 分村⁹이 이루어지는 등 많은 變化를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自然環境: 善隣村은 土地利用構造나 마을 外觀은 農村 部落의 形態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行政的으로 都市에 포함된¹⁰ 産業化過程에서 큰 變化를 經驗하고 있는 都市近郊村의 典型的인 예라 할 수 있다. 서울과 경기도 광주군을 연결하는 43번 國道邊에 있고 하남시의 中心地 신장과 2Km, 서울 12Km, 광주군과 8Km의 거리를 두고 있고 市內·外버스가 수시로 마을앞을 運行하여 住民 移動要件은 良好한 편이다.¹¹ 부락이 位置한 地域은 낮은 구릉지로 家屋立地에 유리하며 金단산을 背景으로 마을 주위를 흐르는 德豐川이 있어 背山臨水의 典型的인 部落形成要件을 갖추고 있다. 德豐川을 境界로 하남시내와 外形上 구분되며 1974년 그린벨트지역으로 指定된 이후 空間構造的인 側面에서 거의 變化가 없었다. 부락이 속한 하남시는 총면적 87.82Km² 중 耕地面積이 18.86Km²이며¹² 農業從事人口가 많은 편인데 이는 하남시가 아직은 都市化하는 變化過程에 있기 때문에 보여진다.

2. 部落構成員의 構造的 變化

(1) 人口 및 家口數: 선린촌의 人口 및 家口數는 1993년 현재 32家口 134名으로 52家口 250名의 1973년 대비 큰 減少率을 보이고 있다. 特記할 點으로 1968년~1973년 기간의 家口數 5배, 人口數 10배의 急激한 增加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당시 부락의 經濟的 발전상과 密接한 關係를 갖는 것으로 보여지며 1973년 대비 1985년에 3가구가 증가한 반면 인구는 33.6%(84명)의 減少를 보인 것은 자녀들이 教育問題나 非農業職 進出등으로 상당수 轉出해 나간 때문에 보여진다.¹³

Table 2. 선린촌의 인구 및 가구수 변화

구 분	1967*	1973*	1985**	1993
가구수(호)	10	52	55	32
인구수(명)	20	250	166	134
남 여 비율	N A	125 (50%:남) 125 (50%:여)	78 (47%:남) 88 (53%:여)	68 (51%:남) 66 (49%:여)
가구증감수(호)	N A	+42	+3	-20***
인구증감수(명)	N A	+230	-84	-166***

자료: * 선린협동촌위원회, 1974, "선린협동촌현황," p. 9.

** 신중성, 1985, "동부선린촌의 형성과 특성," 응용지리, 제8호, p. 112.

주: *** 1973년 대비 인구 및 가구 증감수치.

결국 1973년 대비 현 善隣村의 人口 및 家口數 감소는 死亡이나 出生에 의한 自然的 減少現狀이기 보다 1970년대 中盤을 기점으로 그린벨트지역으로의 지정, 限定된 土地에 따른 規模營農의 限界性, 子女教育 問題등에 따른 分村現狀등의 社會的 減少要因에 크게 基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年齡別 分布 變化 : 性別構成은 1973년과 같이 50 : 50

의 均衡을 維持하고 있으나 年齡別 構成現況은 많은 變化를 나타내며 특히 19세미만 年齡層의 減少幅이 매우 커 1973년 당시 40.4%에 달하던 것이 28.2%에 불과한데 最近에 轉入은 家口의 낮은 出生率¹⁴⁾과 就學期에 있던 아동들의 轉出과 현재 就學期에 있는 年齡層의 상당수 역시 서울등 他地로의 住所變更을 하고 있는 것에 크게 基因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Table 3. 선린촌의 연령별 인구구성변화 1973, 1993

년 도	1973			1993		
	남	여	계	남	여	계
연령별 분포						
0 ~ 7			35(14.0)	5	4	9(8.2)
8 ~ 13			36(14.4)	4	8	12(10.9)
14 ~ 19			30(12.0)	5	5	10(9.1)
20 ~ 30	NA	NA	40(16.0)	8	7	15(13.6)
31 ~ 40			35(14.0)	14	15	29(26.4)
41 ~ 50			32(12.8)	8	6	14(12.7)
51 ~ 60			22(8.8)	5	3	8(7.3)
61 ~ 70			15(6.0)	1	4	5(4.5)
71세 이상			5(2.0)	5	3	8(7.3)
계	125	125	250(100.0)	55	55	110(100.0)

주: 1993년 자료는 총 32가구 중 조사에 응한 25가구 만의 수치임.

71세 이상의 老齡層人口는 5.3%의 增加를 보여 전반적인 韓國農村人口의 高齡化趨勢¹⁵⁾과 就學期에 있던 아동들의 轉出과 현재 就學期에 있는 年齡層의 상당수 역시 서울등 他地로의 住所變更을 하고 있는 것에 크게 基因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3) 家口員規模 및 家族形態:사회구성의 基本單位인 家族 構造와 機能에 대한 연구는 農村社會 變化 研究에 있어 중요한 比重을 차지한다. 현재 선린촌은 核家族形態가 76.0%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直系家族類型은 24.0%로 낮다.¹⁶⁾ 핵 가족유형의 대부분이 夫婦와 子女가 함께 사는 形態를 유지하고 있고 戶當 평균가구원수는 4.40명이다.

Table 4. 선린촌의 가구원 규모 및 가족형태, 1993

가족 유형		가구수(%)	가구원규모(명)	가구수(%)
핵 가 족	독신	1(4.0)	1	1(4.0)
	부부	2(8.0)	2	3(12.0)
	부부 + 자녀	16(64.0)	3	3(12.0)
	(편)부부 + 자녀	—	4	8(32.0)
	소 계	19(76.0)	5	3(12.0)
직 계 가 족	(편)부모 + 부부 + 자녀	1(4.0)	8	1(4.0)
	(편)부모 + (편)부부 + (자녀)	5(20.0)	9명 이상	—
	소 계	6(24.0)	전체가구원수	110
	확대 가족	—	평균가구원수	4.40
계	25(100.0)	계	25(100.0)	

(4) 住民의 前居住地別 變化: 초기 定着民의 상당수(52.2%)는 6.25 와중에 월남한 北韓同胞들이었으나 현재 以北出身은 1명에 불과한데 이는 南北이 分斷된 狀況에서 사망이나 轉出에 따른 당연한 結果로 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서울, 경기도, 충북, 경북 출신이 전체의 64.0%를 차지하는데 이는 地域的 側面에서 接近容易성과 함께 하남시의 擴張과 都市化影響으로 勞働者, 技術者, 會社員등 非農業人口의 轉入增加 要因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변화상은 草創期 주민들이 지니던 同鄉地域 出身으로서의 心理的 一體感 같은 特性이 現 住民들 사이에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轉入時期과 轉入動機의 變化: 초창기 주민들의 特徵으로 理想的 模範農村을 건설코자 하는 開拓者的 정신과 信心을 바탕으로 한 共同體意識이 강한 사람들의 집합체 였다는 것을 들 수 있는데 현재 초창기 部落會員은 20%(5호)에 불과하고 최근 10년 이내 轉入한 家口가 절반 이상(13호, 52.0%)으로 1980년대를 기점으로 선린촌 周邊地域의 급격한 도시화 영향에 따른 部落構成員(특히 비농가)의 빈번한 移動¹⁷⁾으로 全體住民들의 共同體的 意識은 상당히 미약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5. 선린촌 주민의 가구별 전입시기와 전입동기, 1993

전 입 기 별		전 입 동 기 별	
구 분	가구수(%)	구 분	가구수(%)
부락설립 당시부터	5(20.0)	종교적 이상이 좋아서	2(8.0)
20~16년	3(12.0)	친척들이 살고 있어서	4(16.0)
15~11년	4(16.0)	농토가 있기 때문에	3(12.0)
10~ 6년	3(12.0)	직장이 부락 근처에 있어서	5(20.0)
최근 5년 이내	10(40.0)	친구의 권유에 따라	3(12.0)
		양계 관리인으로 취업	5(20.0)
		기 타	3(12.0)
계	25(100.0)	계	25(100.0)

轉入動機 역시 草創期 마을規約에서 볼 수 있던 理想村 建設理念등 부락구성원으로서의 一體感을 強化시키는 要因들과는 거리가 먼 多樣한 動機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轉入動機로 宗教的 理念을 든 사람은 2명에 지나지 않고 親戚과의 合流(16.0%), 친구의 권유(12.0%)를 轉入動機로 든 사람들은 낮은 전세값을 主要 轉入要因으로 들었다. 就業이나 職場과 관련하여 定着한 경우가 많음(40.0%)은 下南시의 勞動力需要 增加와 下南시내 또는 서울지역으로의 接近容易性에 基因한 것은 前述한 바와 같으며 養鷄管理인으로 就業한 사람이 5명(20.0%)으로 初期 部落經濟의 中樞役割을 하였던 양계업은 현재 이들 養鷄管理인들에 의해 維持되고 있는 실정이다.¹⁸⁾

基盤은 최초 3만평에서 1973년 5만3천평에 불과한 限定된 土地, 제 1선린촌 부터 축적된 養鷄技術, 大都市近郊에 위치한 地理的 與件의 세가지 要因과 密接한 關係를 지닌다. 設立 당시 效率的 營農을 위해 部落空間을 經濟生產, 住居, 公共 地域으로 구분하는 努力을 피하였지만 호당평균 919평(약 3정보)으로 당시 農家口當 全國平均 農耕地 保有量의 1/3에 불과해 이런 土地規模의 零細性¹⁹⁾은 營農生產性 提高 측면에서 蓄積된 양계기술과 接木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976년 1,000평以下 경지를 소유한 家口는 79.4%에 달했고 현재 13農家 중 9家口(69.3%)가 1,000평미만의 耕地를 이용하고 있으며 2,000평以上은 단 2가구에 불과해 戶當耕地規模는 여전히 零細性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經濟的 構造 變化

(1) 主要 經濟生產活動의 變化

가. 耕地所有規模 및 利用構造: 선린촌의 經濟生產活動

나. 耕地所有權構造: 부락설립 초기 土地獲得 및 所有權 側面에서 특기할 사항은 住民들의 土地所有權이 매우 높고 대부분(91.9%, 34/37호)이 부모의 遺産보다는 스스로 토지를 획득했던 점이다(You:1985). 그러나 1993년 현재 주민들의

土地所有權은 相對的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100%의 所有權이 있는 家口는 6호(24.0%)에 불과하고 大部分(17호, 68.0%)은 土地所有權이 전혀없는 실정이다. 이는 1976년 이후 非農家의 增加에 따른 住民 職業構造上의 變化와도 關係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급격히 進展된 分村過程을 통해 토지소유권의 都市資本 占有化가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²⁰⁾ 상당수 농가구가 賃貸營農을 하고 있음이 이를 뒷바침 하고 있다.

다. 主要經濟生産構造: 현재 선린촌의 주요 農業生産基盤은 양계와 양돈중심의 畜産業이며 원예작물재배는 自家消費 정도의 水準에 머물고 있는 실정으로 1970년대 中盤까지의 양계업 중심²¹⁾의 部落生産構造와 큰 差異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養鷄業에 限定되었던 農業生産構造에서 좀더 多樣化 해진 점은 差異點으로 들 수 있다.

Table 6. 선린촌 양계업의 양적변화, 1972, 1976, 1993

구 분		1972	1975	1993
양계종사가구(호)		45	45	6
총사육수(수)		95,000	180,000	64,000
호당평균사육수(수)		2,111	4,000	10,666
총계사면적(평)		4,579	4,579	4,579
구 분	사육규모	종사가구수(%)	사육수	호당평균사육수
양 계	3,501 ~ 7,000수	2(20.0)	9,500	4,750
	7,001 ~ 10,000수	3(30.0)	24,500	8,166
	10,001 ~ 20,000수	—	—	—
	20,001 ~ 30,000수	1(10.0)	30,000	30,000
소 계		6(60.0)	64,000	10,666

飼育規模上의 零細性²²⁾은 生産所得의 減少 또는 現狀維持와 直結된다 볼때 양계업에 종사하고 있던 상당수 家口를 타지로 移住하게끔 促進시킨 主要 轉出要因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현재 農家의 農業外所得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고²³⁾ 비농가의 대부분이 經濟

的基盤을 部落 外部地域에 두고 있어 農家數의 漸進的 減少現狀과 함께 부락의 경제적기반이 農業爲主에서 점차 非農業爲主의 形態로 변하고 있으며 善隣村이 점차 農村的機能에서 住居中心의 都市的機能으로 변하고 있음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Table 7. 선린촌 농가 및 비농가구별 연평균 수입 및 지출 규모, 1993

구 분	수 입		지 출		부 채	
	농 가	비농가	농 가	비농가	농 가	비농가
없 다	—	—	—	—	4(30.8)	10(83.3)
600 만원미만	—	—	2(15.4)	3(25.0)	2(15.4)	—
600 ~ 800 万	—	1(8.3)	2(15.4)	2(16.7)	—	—
800 ~ 1000 万	2(15.4)	1(8.3)	—	2(16.7)	—	—
1000 ~ 1200 万	1(7.7)	4(33.3)	2(15.4)	3(25.0)	—	—
1200 ~ 1500 万	2(15.4)	2(16.7)	2(15.4)	—	1(7.7)	1(8.3)
1500 ~ 2000 万	3(23.1)	1(8.3)	3(23.1)	1(8.3)	1(7.7)	1(8.3)
2000 ~ 2500 万	—	2(16.7)	—	1(8.3)	2(15.4)	—
2500 ~ 3000 万	3(23.1)	—	—	—	1(7.7)	—
3000 ~ 4000 万	1(7.7)	1(8.3)	1(7.7)	—	—	—
4000 만원 이상	1(7.7)	—	1(7.7)	—	1(7.7)	—
소 계	13(52.0)	12(48.0)	13(52.0)	12(48.0)	13(52.0)	12(48.0)
가구당 평균	1961.2	1475.0	1507.7	791.7	1223.1	225.0

(2) 家口別 經濟構造變化: 1970년대 都市人口의 급속한 膨脹과 國民所得의 增加에따른 食品消費性向의 변화는 畜產物需要의 增加를 가져왔고 이런 변화는 初期 善隣村의 높은 家計收入에 결정적 役割을 하였다.²⁴⁾ 1976년 당시 연평균수입은 全國農家 平均의 2.2배가 넘는 반면 支出은 2배에 못미쳐 生活改善이나 營農擴充 基盤을 마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1993년 현재 收入은 全國農家平均의 1.2배, 支出 1.1배(Table 29. 참고)로 1975년 대비 家口經濟力이 매우 낮아져 현 善隣村 經濟構造의 沈滯現狀을 잘 나타내고 있다. 특히 現善隣村의 農家 및 非農家別 收入 및 支出現況을 비교하면 두 集團間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는데 收入規模는 農家가 대체로 높으나 支出規模 역시 비농가 보다 크며²⁵⁾ 비농가의 낮은 수입은 日用勞動職등의 家口主 職業과 聯關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976년 당시 負債比率은 매우 낮은 水準으로 高金利의 高리채나 銀行등에 負債를 진 사람은 없었고 대부분(72.0%)이 部落에서 운영되던 低金利 信用協同組合을 통해 融資를 받았고 無利子로 이웃에게 빌린 경우도 있어 당시 部落民들 사이에 相互信賴와 協同精神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현재

25調査家口 중 11호(44.0%)가 부채를 지고 있어 비율적으로 약간의 增加를 보였고 빚을 갚아야 할 對象은 부락신용조합 위주에서 農協, 銀行, 飼料會社등으로 多樣해졌고²⁶⁾ 負債가 없는 農家는 3호(30.8%) 뿐인데 반해 비농가는 大部分(10가구, 83.3%) 負債가 없어 農家口의 負債負擔率이 相對的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3) 勞動力構造의 變化

가. 農業勞動力構造: 선린촌의 農業勞動力構造는 많은 變化를 나타내는데 現在 農家人口는 61.8%(68명, 13호)에 불과해 비농가 人口가 거의 없던 1970년대와 對比하여 큰 폭의 減少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農家人口가 전체인구의 절반을 넘어 農村部落의 特性을 나름대로 維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非農家人口 增加趨勢는 申重盛(1985:113~114)의 調査²⁷⁾나 本 研究에서 나타난 共通點으로 이것은 善隣村의 機能이 周圍輿件의 변화와 함께 單位農村部落에서 점차 都市的機能으로 변하고 있음을 대변하는 것으로 現在 비농가 대부분(10가구, 83.7%)의 經濟的 基盤이 部落 外部地域에 있음이 이를 뒷바침한다.

Table 8. 선린촌의 농업노동력구조 변화, 1973, 1993

구 분	농가(%)	비농가(%)	겸업농가(%) (농업+비농업)	계
1973	45(86.5)	0	7(13.5)	52(100.0)
1993	12(48.0)	12(48.0)	1(4.0)	25(100.0)
증 감 율	-33(-74.4)	+12(1,200)	-6(-85.8)	-27(51.9)

구 분	1973	1993
농가호수	52	13 호
총농가가구원수(A)	250(100.0)	68 명
영농종사자수(B)	N A	33 명
호당평균영농종사자	N A	2.54 명
영농참여율(A/B)	N A	48.50 %

1993년 현재 13農家의 平均家口員數는 5.24명으로 3.50명(12가구, 42명)의 非農家 보다 規模面에서 훨씬 크며 家口當 2.54명이 영농에 참여하여 48.5%의 營農參與率을 보이고 있다. You(1986)의 조사에 의하면 1976년 당시 대부분(67.5%)이 雇用勞動力을 利用하였는데 현재 53.8%가 전혀 이용치않거나 畜產關聯作業, 발작물 播種時와 收穫期에 短期間만 利用하여 全般的으로 利用도가 낮아졌는데 經濟力의 零細性에 따라 大部分이 家族構成員만으로 영농을 하고 있음

을 뒷바침한다. 農業機械化 側面에서의 선린촌은 1970년대 水準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注目 할 점은 農業機械化에 대한 意識으로 農家口主 대부분이 經濟的 어려움, 變化에 따른 部落將來의 不確實性, 限定된 土地등의 이유로 농업기계화가 큰 意味가 없다고 應答하여 현 선린촌의 낮은 機械化 營農水準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나. 農業人口特性: 농가구의 平均家口員數는 5.24명으로

대부분(11호, 84.6%)이 4~6명의 家口員들로 구성되어 있어 規模가 큰 편이며 老齡夫婦만 사는 경우는 1家口 밖에 없으며 單身家口는 없다. 13호 農家口主의 年齡別 構成을 보면 61세이상 노령층은 3명(23.1%)으로 적는데 반해 30대, 40대, 50대가 각 4명씩으로 청장년층이 고루 分布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13農家口 중 최근 5년 이내에 轉入한 家口는 3호(23.1%)로 전반적으로 이들의 居住期間이 긴 편이지만 부모로부터 承繼하여 農業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는 없고 子女가운데 代를 이어 農業에 從事할 延齡후계자를 確保하고 있는 경우도 1家口에 지나지 않아 향후 善隣村의 農業從事家口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展望된다.

다. 非農業人口特性: 지난 20여년간 선린촌은 非農家의 增加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농업종사가구와 많은 差異點을 보이는 이들에 의한 住民構成員상의 變化는 초기 定着民들이 지니던 共同體意識, 協同精神과 같은 特性들이 점차 사라져가는 것과 密接한 聯關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비농가구주의 職業은 多樣하며 前職業이 農業인 사람은 없고 托목관련 技術者와 日用勞動者가 4명(33.3%)이며 기타 個人事業, 家內工業, 會社員, 牧師, 無職 등으로 대부분(8명, 66.7%)은 職業上 部落 外部地域에 經濟基盤을 두고 있어 이들에게는 부락이 住居用으로 이용되는 都市的機能을 하고 있는 셈이다. 平均年齡은 42.6세로 農家口主의 50.6세보다 훨씬 젊고 戶當 1.58명의 子女를 두고 있어 核家族 類型의 特性을 잘 나타낸다. 平均家口員數는 3.50명(42명/12가구)으로 農家口의 5.23명 보다 훨씬 적어 全體 人口의 감소에 決定的 影響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³⁰⁾ 主要 轉入動機는 직장과의 接近容易性, 낮은 賃세, 친척과의 합류 등으로 理想協同村 建設意志나 宗教의 信仰心 등과는 전혀 無關한 것은 前述한 바와 같다.

4. 社會·文化的 構造의 變化

(1) 行政組織構造

가. 部落行政組織: 초기 善隣村은 마을 規約에 의해 마을 運營委員會가 구성되어 行政事務를 執行했는데 모든 運營活動은 部落員들의 定期總會를 거쳐 수행되었다.³¹⁾ 그러나 1970년대 中盤을 기점으로 부락민들의 分村擴散과 轉出入 人口의 增加에 따라 1970년대 末에 와서는 마을 運營委員會나 마을規約의 效力이 거의 喪失되어졌고 현재 住民들의 共同體의 役割을 담당하는 部落自治行政組織은 存在하지 않

으며 部落共同體의 事業이 추진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나. 部落經濟協力組織: 설립 초기 부락의 生産基盤이었던 養鷄業의 發展을 위해 住民들은 이스라엘의 키브츠와 같은 共同生産, 共同分配의 原則下에 生産, 販賣, 購買를 共同으로 運營하였는데 이의 效率的運營을 위해 生産과 販賣를 위한 善隣協同組合(생산자 協동조합),³²⁾ 生活必需品의 廉價共同購買를 위한 消費組合, 그리고 마을회원들의 金融問題를 위한 信用協同組合등의 經濟協力組織이 구성되었다. 이들 3개 經濟協力組織은 初期에 매우 活動的으로 運營되어졌으나 현재 設立初期의 推進目的이나 運營形態를 그대로 維持하고 있는 것은 없고 消費組合과 善隣協同組合은 완전히 그 機能을 상실하였으며 그나마 현재까지 機能을 발휘하고 있는 組織은 善隣信用協同組合으로 이 또한 運營面에서 많이 변하여 初期에는 部落民만 會員資格이 있었으나 현재 隣接地域 住民들도 會員으로 加入하여 부락공동체적 經濟協力組織 이라기 보다는 善隣教會와 마찬가지로 隣接地域社會中心으로 그 範圍가 擴大되어 機能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³³⁾ 善隣信協은 1980년대 후반에 들어 急成長 하였는데 이 時期는 東部군이 하남시로 昇格(1989년)되는 등 周邊地域의 都市化가 급속히 進展된 때로 이와 밀접한 關係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部落宗教組織: 농촌부락의 形成要因으로 特異한 경우이긴 하나 宗教의 結束力을 바탕으로 信仰共同體의 부락을 形成하는 경우가 있는데³⁴⁾ 선린촌도 초기 모든 構成員들이 同一宗教人 이었다는 점에서 宗教村落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당시 善隣教會는 超教派의 性格을 유지하여 다른 教派에 所屬되지 않고 獨自性을 유지하였고³⁵⁾ 신앙자체가 部落會員資格으로 規定되어 있었다. 1970년대 農村啓蒙運動을 실시하는 등 부락민의 일체감을 높이고 農村地域社會開發에 貢獻하는 두가지 중요한 役割을 하던 東部善隣教會의 役割도 오늘에 와서 점차 변하여 前者의 役割은 상당히 미약해 진 반면 獎學事業이나 傳統意識 教育등 地域社會 奉仕 機能에 더욱 比重을 두고 있다.³⁶⁾

(2) 住民 教育水準

초창기 주민들의 教育水準은 매우 높았는데 You(1986: 100)는 높은 教育수준이 理想的 協同村建設에 肯定的으로 작용한 要因으로 보았다. 현재 高等學校在學以上 學歷을 가진 사람은 48.3%(53명), 專門大學以上の 構成比(16.4%)는

는 1973년(22.8%)보다도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草創期 住民의 子女教育 熱意 역시 매우 높아 대부분이 專門大學 以上の 教育을 희망하였는데²⁵⁾ 이는 父母 자신들의 높은 教育水準과 密接한 關係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經濟

的 安定에 따른 要因도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子女教育 熱意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相對的인 側面에서 草創期 주민들의 熱意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Table 9. 초창기 선린촌 주민의 교육수준 비교, 1973

교육수준	전국평균	도시평균	농촌평균	선린촌
초등학교(국민학교)	28.7	26.3	29.9	18.0
중등학교(중, 고등학교)	13.0	21.8	8.3	42.4
전문대학 이상	2.1	4.6	0.8	22.8
기타	56.3	47.4	61.0	16.8
총인구	23.7백만명	8.2백만명	15.5백만명	250(100.0)

(3) 住居 및 文化環境

初期 선린촌의 특성으로 部落空間을 公共地域, 經濟活動地域, 住居地域으로 3분하여 空間構造上의 效率성과 結合력을 꾀한 점을 前述하였는데 公共地域에는 敎育회관, 창고, 운동장, 도로가 포함되었고 生産地域은 비닐하우스도 설치되었으나 養鷄業을 위한 鷄舍²⁶⁾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당시의 空間配置 形態는 1974년 실시된 그린벨트 影響으로 現在 거의 變化가 없다. 초창기 經濟成長으로 대부분이 TV, 전기 밥솥, 자기수도 등을 갖추어 당시 주민들의 生活滿足度는 매우 높았으나 신중성(1985)의 研究에서는 약 47.5%(16가구)만이 生活에 滿足한다고 應答하여 全般的으로 生活水準 滿足度가 낮아졌음을 밝혔는데 本 研究結果 역시 이와 類似한 結果를 나타냈다. 特記할 점은 家口別 住居文化環境 차이가 심한 점인데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 家口도 많은(10호, 40.0%) 반면 낮은 실내욕조 보유율(13가구, 52.0%), 개량식화장실 보유율(16가구, 64.0%)등에서 나타나듯이 住居地域과 生産地域으로 分類된 畜舍에 隣接한 家屋에 사는 住民들간의 差異가 특히 두드러진다.²⁷⁾

4) 住民 意識構造

가. 女性的 役割과 子女職業: You(1986:111)에 의하면 초창기 대부분(75.0%)의 住民들은 女性的 社會活動에 매우 開放的인 意識을 갖고 있었고 子女들에게 會社員, 敎育者등 非農業職에 일 할 수 있는 機會를 부여하고 싶어함과

동시에 상당수(18명, 45.0%)는 아들에게 農事를 물려주기를 원하였다. 本 研究에서도 女性的 家事外 就業活動에 관해 24명(96.0%)이 찬성하여 女性的 社會活動參與은 이미 一般化된 概念으로 認識轉換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子女의 營農承繼에 관한 調查結果는 부모들이 農業에 대해 매우 否定的 視覺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현재 子女중에서 營農後繼者를 확보하고 있는 農家는 단 1家口 밖에 없고 希望하는 子女職業에 관한 調查에서도 대부분의 父母들이 農業보다 非農業職業을 월등히 選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指導力構造: 초창기에는 마을 規約에 따라 轉入希望자의 會員資格 附與에 慎重을 기해 부락발전을 社會奉仕 概念으로 볼 만큼의 潛在的 指導力을 갖춘 사람들이 많았으나 당시에는 한 두명의 指導子에 의해 부락발전이 推進되었다기 보다 多數의 指導子그룹을 중심으로 全住民의 共同體의 指導力構造를 維持하고 있었다 볼 수 있다. 그러나 住民構成上의 急激한 變化와 함께 部落結束力이나 共同體의 一體感을 거의 喪失한 지금은 뚜렷한 指導力構造를 찾아볼 수 없는 實情인데 이는 '부락을 이끄는 지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의 質問에 里長이나 宗教指導子, 部落年長者등 지도자²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뚜렷한 지도자가 없다. (11명, 44.0%)고 應答한 사람이 더 많은 것에서도 알 수 있다.

Table 10. 선린촌 가구주의 부락내 지도자 인식도, 1993

구 분	빈 도(%)	구 분	빈 도(%)
부락내 연장자	3(12.0)	종교적 지도자	6(24.0)
부락 이장(동장)	3(12.0)	교 육 자	—
영농지도자	—	일선행정관리	—
청소년지도자	—	기타 및 무응답	2(8.0)
독 농 가	—	없 다	11(44.3)
소 계	6(24.0)	소 계	19(76.0)

다. 農業關聯 接觸網: 초창기 住民들은 農協이나 農村指導所와의 빈번한 接觸을 통해서나 각종 農村指導教育事業에 參與하여 영농관련 情報나 技術을 積極的으로 收容하고 자 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You, 1986) 現在 營農關聯機關과의 接觸이나 營農教育參與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³⁹⁾ 現 農家口主들이 가장 빈번히 접촉하는 機關은 善隣協同組合(16가구, 64.0%)으로 나타났고 農協(6가구, 24.0%)과의 접촉도 많으며 資金融資을 主要 接觸理由로 들었고 서울. 경기 養鷄組合이나 畜協과의 접촉(8가구, 61.5%)도 販賣나 情報交換과 관련하여 잦은 편이지만 農村指導所를 방문하거나 農村指導教育事業에 參與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영농 관련 討議도 주로 家族爲主로 하고 사료, 비료, 약품회사에서 나온 사람들과 간혹 意見を 交換하는 것이 大部分(10가구, 76.9%)이며 相談內容은 販賣流通이나 畜產技術 및 經營管理등으로 變動이 심한 畜產物 販賣價格에 敏感

한 것으로 보여진다.

라. 部落將來: 現 善隣村 주민들은 部落將來에 대해 상당한 不安感⁴⁰⁾을 갖고 있으며 부락의 發展障礙要因으로 資本이나 人力不足, 하수시설 및 교통불편 등을 指摘한 경우는 얼마되지 않는 반면 그린벨트지역(13명, 52.0%)에 포함되어 있는 실정을 가장 큰 障礙要因으로 들어 그린벨트지역에 속한 現 狀況은 주민들에게 將來에 대한 不確實性和 함께 將來去就 문제에도 直接的인 影響을 미치고 있으며 向後 그린벨트 政策變化에 따라 상당한 人口移動이 豫見되어 近郊農村的 機能보다는 점차 都市的機能을 수행하는 지역으로 急變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共同體意識 缺如를 지적한 경우는 2명(8.0%)⁴¹⁾에 불과해 이미 住民들에게 共同體의 개념이 거의 存在하지 않는 것을 反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11. 발전장애요인 인식 및 이주계획 현황, 1993

장애요인	농가	비농가	이주계획	농가	비농가	이주원인	농가	비농가
그린벨트지역	8	5	있 다	2	4	일시체류중		2
하수시설,교통불편	1	2	없 다	8	5	자녀교육		1
자본, 인력부족	1	1	모르겠다	3	3	작업전환	1	1
공동체의식결여	1	1				영농확장	1	NA
무응답	2	3				영농불가능시	2*	NA
소 계	13	12	소 계	13	12	소 계	4	4
총 계	25(100.0)		계	25(100.0)		계	8(100.0)	

주: *는 이주계획에 모르겠다고 응답한 2농가가구

B:운교리-부락지도자 중심의 상향식발전모형-

1.雲橋里의沿革 및 自然環境變化

(1)沿革: 운교리는 高麗末에 形成되어 600여년의 긴 歷史를 지닌 우리나라 農村部落의 典型的 成立形態로 볼 수 있는 自然發生的 村落로 현재 行政區域上 전북 남원군 대산면⁴²⁾에 속해 흔히 '운교마을'로 불려진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1970년대 초기 自立마을로 區分 될 만큼 타 農村部落과 比較하여 상당한 發展을 이룩하고 있었는데 그 原動力은 부락의 有能한 指導子⁴³⁾를 中心으로 1959년 자체적으로 雲橋協同組合을 설립 한 뒤 效率的運營을 통해 自立의 土臺를 마련한데 있으며 이후 全國的으로 불붙은 새마을운동에 同參하게되었고 急速한 産業化의 過程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2)自然環境: 單位部落의 地理的 位置는 産業化時期에 있어 部落變化와 밀접한 關係를 갖는데 운교리는 남원에서 8Km, 전주시와 68Km 떨어져 있다. 고룡산성을 끼고 마을뒤에 위치한 풍악산과 계룡산 사이의 山岳地域에 位置한 地域條件은 1970년대 初만해도 住民移動에 커다란 制約이 되었으나⁴⁴⁾ 현재 시내버스가 남원시내에서 하루 16회씩 마을안까지 運行되어 移動要件은 매우 良好한 편이다. 地理的 條件上 특이한 것은 마을이 위치한 곳이 面所在地로 각종 官公署와 公共建物이 부락내에 있는 점을 들 수 있고 比較적 경사가 완만하며 풍악산을 背景으로 마을 가운데를 흐르

는 雲橋川이 있어 背山臨水의 部落形成, 立地要件⁴⁵⁾을 갖추고 있으나 土質은 척박한 편이다. 마을이 속한 大山面은 현재 總面積 35.90Km² 으로 農耕地(29.0%)보다 林野(67.0%)가 훨씬 많은 東部 半平野 半山岳圈에 속하며 1992년말 90.4%가 農家人口이다. 하지만 南原郡 전체의 農家人口는 21.0%로 대산면에 비해 매우 낮은데⁴⁶⁾ 이는 운교리 定住生活圈으로서 '중심도읍'⁴⁷⁾ 機能을 擔當하는 남원의 都市的 機能이 점차 強化되는 過程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雲橋里 部落構成員의 構造的 變化

(1)人口 및 家口數의 變化: 오랜 部落形成歷史에서 알 수 있듯이 部落構成員構造는 근본적으로 血緣이나 地緣關係에서 찾을 수 있지만 先行研究에 의하면(You:1986) 여러 性씨들이 모여살아 單一氏族社會로는 보기 어려우며⁴⁸⁾ 1976년 당시 총 155호가 살아 家口數 規模面에서 상당히 크고⁴⁹⁾ 주민 教育수준이 높은 편이었으며 大部分 農業에 從事하였으나 非農업 從事子들도 상당수 있었다.⁵⁰⁾ 1968년-1976년에는 家口數(155호)의 變化가 없었는데 당시 部落의 經濟的發展과 함께 家口主의 뚜렷한 移動要因이 없었음을 大變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現在 146家口 461名으로 1976년 대비 人口數面에서 戶當平均人員이 절반으로 줄 만큼 큰 減少率(-51.4%)을 보여 全般的인 農村人口의 減少現狀을 그대로 反映하고 있는데⁵¹⁾ 1976년-1983년 急激한 人口減少(-24.3%)를 보였고 1988-1993년 人口減少가 다시 두드러져 최근들어 住民構成에 많은 變化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2. 운교리의 인구 및 가구수 변화, 1976~1993

구분 \년도	1976*	1983**	1988**	1993**
가구수	155	152	147	146
인구수	948	718	653	461
호당 평균 인원	6.12	4.72	4.44	3.16
남·여비율	522(55%:남) 426(45%:여)	326(45%:남) 392(55%:여)	303(46%:남) 350(54%:여)	209(45%:남) 252(55%:여)
가구증감수	NA	-3	-5	-1
인구증감수	NA	-230	-65	-192

주:*는 You, 1986, 상계서, p. 134에서 재정리; **는 남원군 통계연보 각년도 참고

(2) 年齡別分布變化: 1976년 男性構成比가 높던 것이 1993년 현재 性比는 거의 비슷하나 女性比率이 오히려 높다. 1976년 대비 0~14세의 未就學아동과 幼少年層, 15~25세의 就學年齡層, 26~40세의 靑中年層이 감소한 반면 41~60세 壯年層은 약간의 증가를, 61세이상의 老齡層人口는 全體人口의 21.7%(82명)를 차지할 만큼 높은 增加率을 보여 全般的인 農村社會의 변화와 類似的한 結果를 보이고 있

다. 15~25세의 취학연령층 감소(6.1%)는 상대적으로 적어 教育을 위한 子女들의 他地轉出이 都市近郊部落보다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41~60세층의 增加(7.1%)는 61세 이상의 急增(15.4%)과 함께 주민의 高齡化現狀을 보여주며 1970년대 中年層이 계속 居住하여 生인 增加로 보여져 지난 20여년간 家口主들의 轉出入을 통한 住民構成上의 變動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13. 운교리의 연령별 인구구성 변화, 1976, 1993

년도 구분	1976			1993		
	남	여	계	남	여	계
연령별 분포						
0 ~ 14	125	108	233(24.6)	25	26	51(13.5)
15 ~ 25	176	116	292(30.8)	48	46	94(24.9)
26 ~ 40	92	81	173(18.2)	27	21	48(12.7)
41 ~ 60	100	90	190(20.1)	50	53	103(27.2)
61 ~ 70	29	31	60(6.3)*	26	28	54(14.3)
71세 이상				10	18	28(7.4)
계	522	426	948(100.0)	186	192	378(100.0)

주: 1976년 자료는 You(1986), 전게서, p. 134 에서 재정리.

(3) 家口員規模 및 家族形態: 전체 139戶 中 82戶의 家族形態 조사결과 核家族類型이 절대적으로 많고(79.18%) 平均家口員數는 2.72명으로 작는데 單身家口(47호, 33.8%)가 많은 것이 主要原因이다. 家族類型上 운교리의 두드러

진 特徵은 老齡夫婦家口와 특히 單身老齡家口(남 25호, 여 22호)가 많은 점으로 部落構成員上의 이런 變化는 지난 20여년간 子女들의 社會的 轉出이 활발히 進行되었음을 뒷바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14. 가구원 규모별 가구수와 가족형태, 1993

가족 유형		가구수(%)	가구원규모(명)	가구수(%)
핵가족	단신	15(18.3)	1	47(33.8)
	부부	19(23.2)	2	24(17.3)
	부부+자녀	29(35.4)	3	24(17.3)
	(편)부부+자녀	4(4.9)	4	24(17.3)
	소 계	67(79.18)	5	12(8.6)
직계가족			6	5(3.6)
			7	1(0.7)
	(편)부모+부부+자녀	7(8.5)	8	2(1.4)
	(편)부모+(편)부부+(자녀)	2(2.4)	9명 이상	-
	소 계	9(10.9)	전체가구원수	378
기 타		6(7.4)	평균가구원수	2.72
계		82(100.0)	계	139(100.0)

(4) 轉入時期와 轉入動機의 變化: 現 家口主들의 대부분(66명, 80.4%)이 할아버지, 부모님때 부터 살고 있다고 應答하여 대체로 居住期間이 길며 最近 5년이내에 轉入 온 경우는 3가구(3.7%)에 불과해 都市近郊部落에 비해 轉入要因이 많지 않음을 대변하여 대부분의 現住民들은 農事를 포기하거나 高齡化에 따른 要因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社會的 轉入動機를 갖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轉入(居住)動機로 상당수가 農土가 이곳에 있어서(30.5%), 先祖에 대한 子息의 本分(31.7%)을 들어 상당수가 農村部落이 갖는 典型的인 定住性에 基因한 農村社會의 居住要因을 가지고 있으나 農事 자체가 좋거나 農村, 農業의 發展과 復興을 위해 산다고 응답한 사람(5명, 6.1%)들도 있음은 注目할 점으로 여겨진다. 친척들이 살고 있어서는 7명(8.5%)에 지나지 않아 同一氏族이라는 變因이 同一地域에 居住케하는 農村社會의 機能이 점차 弱化的으로 볼 수 있다. 職場과 관련한 住居理由는 4명(4.9%)으로 面所在地로 公共機關들이 있고 南原과의 交通편이 양호하여 出退勤이 가능한 것이 主要 要因으로 보인다.⁵²⁾

3. 經濟的 構造 變化

(1) 主要 經濟生產活動의 變化

가) 耕地所有規模 및 利用構造: You(1986:122)에 의하

면 1976년 戶當平均耕地面積은 2,460평으로 전국평균치에 미달하는 규모였는데 1993년 현재 戶當平均 2,124평⁵³⁾으로 줄어 여전히 영농규모상의 零細性⁵⁴⁾을 나타내며 쉼 220천평, 田 180천평으로 1976년 대비 밭이 2.6배로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人口 및 家口數는 상당한 減少를 보였음에도 平均耕地所有面積이 오히려 줄어든 점은 대부분의 農家가 規模營農을 못하고 있음을 대변함과 동시에 部落土地의 相當部分 他地人 占有가 이루어진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⁵⁵⁾ 상당수(27호, 38.0%)는 3,000평 이상의 耕地所有를 希望하였으나 人力이나 資金不足을 이유로 더 이상의 耕地를 원치 않는 사람도 많은(11명, 15.5%) 것은 注目할 만 하다.

나) 耕地所有權構造: 1976년 당시 住民들의 土地所有權은 낮았는데 一般的으로 농촌에서 이루어지던 土地獲得 形態와 마찬가지로 父母遺產으로 물려받거나 山間地方에 위치한 特性으로 未開發된 땅을 開墾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⁵⁶⁾ 현재 本人이 土地를 買入한 대다수 農家(60.5%)는 90~100%의 높은 土地所有權을 가지고 있으나 상당수 農家가 자신들이 耕作하고 있는 農耕地에 낮은 土地所有權을 갖고 있어 部落土地의 外部人 占有를 뒷바침하고 있다. 1976년 이후 스스로의 開墾을 통해 土地를 확보한 경우는 없었다.

Table 15. 耕地所有權과 획득상의 變化, 1976, 1993

토지소유권	1976			1993		
	본인매입	부모유산	기 타	본인매입	부모유산	기 타
1~20%	4 (4.3)	11 (11.6)	5 (33.4)	4 (10.5)	1 (4.2)	9 (64.3)
21~50%	23 (24.7)	35 (36.8)	6 (40.0)	2 (5.3)	2 (8.4)	1 (7.1)
51~70%	22 (23.7)	18 (18.9)	2 (13.3)	3 (7.9)	5 (20.8)	—
71~90%	24 (25.8)	11 (11.6)	—	6 (15.8)	4 (16.8)	—
91~100%	20 (21.5)	20 (21.1)	2 (13.3)	23 (60.5)	11 (45.8)	4 (28.6)
계	93 (100.0)	95 (100.0)	15 (100)	38 (100.0)	24 (100.0)	14 (100.0)

자료: 1976년 수치는 You, 1986, 전계서, p. 123에서 재정리.

주: 1993년 수치는 농가와 겸업농가의 빈도수치이며 기타는 무경지 포함.

다. 主要經濟生產構造: 운교리의 農業生產基盤은 米穀生産이며 기타 쫓소, 양계, 양돈 등의 畜産業과 고추나 오이 등 所得作物을 재배하여 1970년대의 生産構造와 큰 차이가 없다. 主要所得源으로 대부분의 專業農은 農作物生産을 든

반면 대부분(85.7%)의 兼業農은 非農業所得을 들어 農業所得이 미미하고 農事活動 보다 農業外 活動에 치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농가의 經濟構造는 대체로 劣惡한데 이는 公共機關이나 南原에 就業하고 있는 一部를 제외한 大部

분이 單身老齡人口로 無職이 많기 때문이다. 全體的으로 運교리의 經濟生産基盤은 큰 變化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專業農의 減少, 老齡夫婦와 老齡單身家口의 증가, 兼業農의 非農業 置重등의 現實로 미루어 向後 부락의 經濟生産基盤이 農業中心에서 非農業中心으로 變모할 可能性도 없다고는 볼 수 없다.

(2) 家口別 經濟構造變化: 1970년대 運교리의 家口經濟力은 平均收入이 全國農家平均 보다 56.4% 높아 양호하였으나(You:1986) 1993년 현재 平均收入이 1,089.5만원으로 全國農家平均의 0.8배, 支出은 879.4만원 0.9배로 매우 劣惡한 狀況에 있음을 알 수 있고 農家와 非農家の 經濟力을 比較한 결과 두 集團間 상당한 差異를 보여주었다.

Table 16. 運교리 농가 및 비농가구별 경제력 비교, 1993

구 분	수 입		지 출		부 채	
	농 가	비농가	농 가	비농가	농 가	비농가
없 다	-	-	-	-	12(16.9)	6(54.5)
600만원 미만	12(17.9)	6(54.5)	20(29.9)	6(54.5)	31(43.7)	4(36.4)
600 ~ 800 "	9(13.4)	2(18.2)	13(19.4)	3(27.3)	11(15.5)	-
800 ~ 1000 "	10(14.9)	-	11(16.4)	-	5(7.0)	-
1000 ~ 1200 "	15(22.4)	-	8(11.9)	1(9.1)	6(8.5)	1(9.1)
1200 ~ 1500 "	5(7.5)	1(9.1)	7(10.4)	-	-	-
1500 ~ 2000 "	9(13.4)	1(9.1)	6(9.0)	1(9.1)	2(2.8)	-
2000 ~ 2500 "	6(9.0)	1(9.1)	2(3.0)	-	1(1.4)	-
2500 ~ 3000 "	1(1.5)	-	-	-	-	-
3000 ~ 4000 "	-	-	-	-	1(1.4)	-
4000 만원 이상	-	-	-	-	2(2.8)	-
소 계	67(100.0)	11(100.0)	67(100.0)	11(100.0)	71(100.0)	11(100.0)

農家の 年間 總收入과 支出의 不均衡은 負債 및 貯蓄의 增減으로 나타나는데⁵⁷⁾ 현재 負債가 없는 경우는 農家 12호 (16.9%), 非農家 6호(54.5%)로 農家口의 負債負擔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1976년 당시 마을금고가 있었지만 部落民들의 資金欲求를 充足시킬 만큼 발달되지 못해 대부분 銀行이나 農協 또는 利子率이 높은 個人 高利채를 저 부채부담이 높았다고 밝혔는데(You, 1986:130)⁵⁸⁾ 現在 負債償還對象機關으로 農畜協이 절대적으로 많고(54가구, 84.4%) 個人이나 銀行등에 빚을 진 경우는 8戶(12.5%)에 불과하다. 負債原因으로는 농토, 농기구, 가축구입비(14호, 21. 9%), 일반 農事費用(29호, 45.2%)등이 많아 대부분의 農家가 나름대로 영농활동에 持續的인 投資를 해온 것으로 볼 수 있고 子女教育費(11호, 17. 2%)도 상당한 負擔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⁵⁹⁾

(3) 農業勞動力構造의 變化

가. 農家와 非農家: 1976년 당시 運교리 農家人口는 全體人口의 88. 9%에 달해 典型的인 單位農村部落의 性格을 유지하고 있었는데⁶⁰⁾ 1980년대 들어 非農家人口가 增加하는 등 약간의 變化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지만 1980년대 後半과 比較해 農業勞動力構造 側面에서 급속한 變動보다는 現狀維持내지 停滯性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農家人口가 전체인구의 약 2/3를 차지하여 單位農村部落의 特性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⁶¹⁾ 山間地域에 位置해 있으면서도 非農家率이 높은 것은 住民들의 移動要件이 양호하며 面所在地로 비농업부문에의 就業이 유리한 점과 최근들어 單身老齡子, 老齡夫婦家口가 勞動力 不足으로 營農을 포기하고 無職으로 남는 경우가 많은 점 등에 基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17. 운교리의 농업 및 비농가수의 변화, 1976, 1988, 1993

구 분	농가 (%)	비농가 (%)	겸업농가 (%)	총 가구수(%)
1976	138(88.9)	17(11.1)	N A	155(100.0)
1983	N A	N A	N A	152(100.0)
1988	117(79.6)	30(20.4)	N A	147(100.0)
1993	115(78.8)	31(21.2)	N A	146(100.0)
1993	57(69.5)	11(13.4)	14(17.1)	82(100.0)

자료: 대산면 각 년도 통계; You, 상계서, pp. 134-135 에서 재정리.

주: 1)1993년 자료는 조사된 82호만의 분포를 나타내며 비농가는 무직도 포함한 수치.

2)1988년의 농가수는 대산면 통계치상에 구분이 없어 겸업농이 포함된 수치.

나. 營農從事率과 營農參與率: 현재 兼業農을 포함한 71 農家 人口는 202명으로 平均家口員數가 2.85명으로 작지만 1.64명의 非農家口 보다는 크며 前述한 바와 같이 單身(15호) 이나 老齡夫婦만 사는 경우와 특히 老齡女性家口主가 많은 (11명) 것이 特徵이다. 營農從事자는 126명으로 戶當 1.77명 이 영농활동에 參與하여 營農參與率은 62.4%로 높은

편인데 이는 農家口 中에서도 單身家口가 많고 대부분이 夫婦가 함께 영농에 參與하는 반면 子女들의 營農參與는 低調하기 때문에 보인다. 71農家口主의 年齡은 30대에서 70대 이상에 이르기 까지 多樣하게 分布되어 있지만 平均 57.3세 로 51세 이상이 전체의 70.4%(50명)를 차지하고 있어 農村人口의 高齡化 現狀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Table 18. 영농종사자수 및 영농참여율 현황, 1976, 1993

구 분	1976	1993	
		운 교 리	전국농가평균
농가호수*	155	71	1,641 천호
총농가가구원수(A)	948	202	5,707 천명
영농종사자수(B)	N A	126	3,495 천명
호당평균영농종사자	N A	1.77	2.13 명
영농참여율(A/B)	N A	62.4	61.2 %
평균가구원수(명)	6.12	2.85	3.70 명
농가주주 평균연령(세)	N A	56.3	-

주: 1976년 수치는 총가구와 인구수; 1993년 수치는 82조사가구 중 전업,겸업농가 포함

자료: 1993년 전국평균은 1992년말 현재, 농림수산부, 농가경제통계, p. 18 참고.

다. 雇用勞動力과 營農機械化: You(1986)의 조사에 의하면 1976년 당시 84가구(69.4%)가 연간 100일이내 雇用勞動力을 이용했는데⁹⁾ 현재 71農家 중 70.4%(50호)가 전혀 이용치 않거나 短期間만 사용¹⁰⁾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營農規模와 農家經濟力의 零細性에 따라 대부분이 夫婦를 中心으로 家族構成員만으로 영농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You(1986:127)는 운교리가 營農機械化에 노력을 기울여 半自動式 農機械를 상당수 保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는데 현재 數量면에서는 상당한 增加를 나타내었으나 대부분의 農

家가 小規模의 限定된 土地, 農業의 斜陽化 現實, 영농후계자의 未確保등의 原因으로 영농기계화 必要性을 절감하면서도 現 상태로는 營農機械化 자체가 큰 意味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社會·文化的 構造의 變化

(1) 社會組織構造

가) 部落行政組織: 운교리는 南原郡 大山面¹¹⁾行政里의

하나로 행정리는 地域共同體로서 社會集團의 性格을 갖기 때문에 集團의 目標設定과 達成을 위해 主要意思 결정시 年 1회以上 住民總會를 개최하여야 한다.⁶⁵⁾ 부락관련사업의 計劃이나 推進은 住民會議를 통해 이루어지나⁶⁶⁾ 상당수 農家口가 非農家 住民과의 接觸이 미미한 점을 指摘하여 비농가의 意思決定 參與度는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南原郡의 運營規則과 設立規程에 根據한 행정리의 主要機構로 里長, 班長, 里開發委員會가 있으며 기타 部落內 經濟社會의 組織은 운교새마을협업농, 대산면농협조합, 青年會나 婦女會등의 새마을관련조직과 親睦이나 相互扶助를 위한 각종 契, 親睦會를 中心으로 多様하게 構成되어 있다.

나) 部落經濟協力 組織: 1959년 農協 理想鄉을 目標로 설립되어⁶⁷⁾ 1970년 대산면농협조합으로 合併되기 前까지 部落 運營에 主導的 役割을 담당하던 雲橋組合은 부락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組合運營은 運營委員會에서 담당하였다. 組合事業의 결정은 組合員總會에서 이루어졌고 公開第一主義 組合運營原則은 조합원의 協同心과 相扶相助 정신을 높이는데 寄與하였으며 운교조합은 購販場 設置를 통한 購買事業, 委託販賣事業, 비닐우산공장운영 등을 통한 所得增大事業, 고리채로 부터 벗어나기 위한 信用事業, 조합공동담⁶⁸⁾의 共同耕作, 각종 福祉事業등을 추진하였다. 운교농협의 대산면농협으로의 合併⁶⁹⁾ 이후 部落 經濟協力組織으로 ‘운교새마을협업농’이 있는데 獎學事業, 冠婚上帝時 相互扶助, 부락공동담 경작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住民共同體의 役割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운교새마을협업농은 發足初期에 비해 그 機能이 미약해져⁷⁰⁾ 현재 共同體의 努力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部落員 中心의 購買나 販賣事業, 利用加工事業등은 완전히 機能을 喪失하였고 공제사업과 組合共同畜 耕作, 獎學事業, 多目的 공동취사장⁷¹⁾ 등 만이 機能上 命脈을 維持하고 있다.

다) 主要農業關聯接觸網: 1970년대 운교리 주민들은 農協이나 農村指導所 또는 새마을弘報委員會등과의 접촉⁷²⁾이나 農村指導教育事業 參與를 통해 영농관련 情報나 技術 收容에 매우 積極的이었다. 현재 영농관련 主要 接觸機關은 農村指導所(45.1%)와 農協(31.0%)으로 나타났고 農村指導教育事業의 參與度와 農業關聯 專門書籍이나 新聞등을 통한 技術이나 情報 收容度는 1970년대 對比 낮은 것으로 나타났⁷³⁾ 결국 운교리에 있어 제반 영농정보전달 체계는 大衆媒體

보다 주로 指導子급의 小數人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現 農家口主들의 낮은 教育水準 및 高年齡과 密接한 關係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영농관련 討議는 農村指導士(26명, 36.6%)나 새마을지도자(12명, 18.3%)와 주로 하며 9명(12.7%)이 非農業爲主 兼業農인 里長을 指摘한 것이 特異한데 이는 住民들의 部落指導力 認識構造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 住民教育水準: 1970년대 운교주민의 教育水準은 全國 平均值와 比較하여 높은 편이었으나 現 家口主들의 57.4% (47명)가 국졸이하로 낮은 差異를 보여주는데 대부분 底學力의 부모들은 계속 居住하고 있는 반면 초중등학교에 다니던 子女들은 成長하여 上級學校 進學, 就業, 結婚등으로 轉出해 나감으로써 생긴 社會的要因에 의한 變化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父母가 子女들을 專門大學 이상의 教育을 시키고자 할 만큼 높았던 子女教育에 대한 熱意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⁷⁴⁾

(3) 住居 및 文化環境

가) 새마을사업: 새마을운동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 부터 雲橋組合을 中心으로 自體的으로 各種 부락사업을 推進해 오던 운교리는 1972년을 기점으로 새마을운동의 影響을 받아 環境整理事業, 農路擴張, 마을안길 擴張工事등의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환경이 크게 改善되었는데 電氣는 1972년도에 架設되어져⁷⁵⁾ 住民生活便益에 크게 寄與했고 운교천 석축공사, 마을 진입로공사도 이 당시 이루어졌다.⁷⁶⁾ 새마을사업에 대한 滿足度 조사결과 共同利用施設事業이나 環境改善 및 保健衛生事業은 肯定的으로 보는 반면 所得增大事業과 生産基盤造成事業은 相對的으로 滿足度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실시되고 있는 새마을사업에 관해 아느냐는 질문에 ‘전체를안다’(17.1%), ‘전혀모른다’(41.5%)로 새마을사업에 대한 關心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弘報不足과 住民의 無關心, 그리고 새마을사업에 점차 住民參與가 줄고 官위주로 進行되기 때문에 보여진다.⁷⁷⁾

나) 文化施設: 1970년대 주민들의 文化環境水準은 전반적으로 높았으나⁷⁸⁾ 1976년 조사가구의 76.0%가 욕조개량등 住居環境改善과 T. V 수신기, 냉장고등의 家電製品 購入을 희망하여 만족도를 充足시킬 정도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家庭生活用品 保有率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지난 20여년간 韓國社會의 全般的인 經濟成長에 따른 보급을 增加로 보여지며⁷⁹⁾ 保有現況은 냉장고(90.2%), 전화(89.0%), 라디오(82.9%), T.V(75.6%), 전기밥솥(74.4%)順이며 자가용 保有家口도 상당수(8호)되고 오토바이나 자전거의 保有率도 높아 個人 交通手段으로서 많이 活用되고 있다.

다) 宗教活動: 현재 雲橋住民들의 主要 宗教는 불교(31호, 37.8%)와 기독교(19호, 23.2%)이며 特異한 점은 宗教가 없다고 답한 사람(23호, 28.0%)이 많았으며 巫俗信仰을 믿는다고 답한 경우도 3戶나 되어 農村社會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나는 傳統的 信仰崇拜 意識을 지닌 住民들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라) 醫療 및 公共施設: 운교리의 경우 面所在地에 위치한 地域의 利點으로 部落內 郡保健診療支所⁸⁰⁾가 있어 醫療環境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共同利用施設로 마을회관과 노인정이 있고 1983년 부터 운영되던 幼兒院은 1993년 閉鎖되어 就學前 兒童教育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견된다. 마을의 住居環境上 특이한 점으로 個人經營 술집이나 다방

등이 전혀 없는 것을 들 수 있는데 1960년대 雲橋里洞組合 시절부터 農閒期 도박습성과 같은 問題點을 해결기 위해 마을전체회의를 통해 禁止해 온 것인데 현재 대부분은 肯定的으로 여기고 있으나 一部는 否定的 視覺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⁸¹⁾

(4) 住民意識과 指導力構造

가) 子女營農承繼: 現在 대부분의 父母들은 子女가 代를 이어 農業에 종사하기를 반대(55명, 77.5%)하여 子女의 營農承繼를 원치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You의 研究結果와 유사하다.⁸²⁾ 자녀가 成長해 함께 살기를 원하는가의 質問에는 大部分이 자녀가 농부가 되는 것이 싫어(22명, 31.4%), 나은 미래를 위해(32명, 45.7%)등을 理由로 들어 否定的으로 應答하였는데 結論적으로 農業을 天職으로 여기고 있는 자신들과는 달리 農事를 자녀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아 이들이 農村 農業에 매우 否定的 視覺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意識은 農業의 沈滯狀況과 密接한 聯關性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向後 非農家人口의 漸進的 減少를 豫見할 수 있는 指標로 볼 수 있다.

Table 19. 부락발전 장애요인 및 이주계획, 이주동기, 1993

장애 요인	빈도(%)	이주계획	빈도(%)	이주 동기	빈도(%)
자본부족	29 (35.4)	있 다	13 (15.9)	자녀와 합류	6 (26.2)
기술부족	3 (3.7)	없 다	55 (67.1)	자녀 교육	7 (30.4)
인력부족	25 (30.5)	모르겠다	12 (14.6)	직업 전환	1 (4.3)
농업정책 부재	5 (6.1)	무 응 답	2 (2.5)	직장 변동	1 (4.3)
토지규모의 영세	3 (3.7)			영농 확장	1 (4.3)
공동체의식 결여	4 (4.9)			농촌이 싫어서	4 (17.4)
기타 및 무응답	12 (14.6)			기 타	3 (13.1)
소 계	82 (100.0)	소 계	82 (100.0)	소 계	23 (100.0)

나. 住民의 社會的移動: 지난 20여년간 父母들과는 달리 子女들의 社會的移動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것은 1976년 당시 121家口 中 19호(15.7%)만이 서울이나 都市地域으로 移住할 계획임을 밝혔고 이들 中 12家口(63.2%)가 子女教育을 주요 移住原因으로 밝힌 것과 연관이 있다 볼 수 있다. 現在 移住를 계획하고 있는 家口는 13호(15.9%)에 불과해 社會的移動이 급속히 進展될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고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이들 13家口는 農家 6

戶, 非農家 7戶로 나타났다.⁸³⁾

다. 部落變化에 대한 認識: 현재 부락의 諸般 變化像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냐는 說問에 상당수(39명, 49.4%)가 部落內 指導子를 들어 部落指導子의 役割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고 部落民自身을 든 사람도 상당수(21명, 26.2%)로 大部分이 外部要因 보다는 部落의 內部要因에 변화의 根本 原因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注目된다.⁸⁴⁾

라) 指導力構造: 현재 운교리의 指導力은 1970년대 강력한 推進力을 지닌 單一指導子 中心에서 分散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特異한 점은 指導子에 대한 認識과 주민들의 年齡構造나 經濟的 地位등이 상당히 밀접한 關係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다.⁸⁵⁾ 현재 부락의 지도자를 묻는 設問에 里長(40명, 48.8%), 部落年長子(22명, 26.8%)⁸⁶⁾, 새마을지도자(11명, 13.4%)를 들어 상당수가 里長을 主要 指導子로 들었는데 이는 里長이 갖는 社會的 地位로 주민과의 接觸機會가 많고 40대로 비교적 젊은 연령이 指導力認識에 影響을 끼친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 지도자들은 經濟的으로 中上流層에 속해 經濟的 地位 역시 이들이 갖는 社會的 地位와 함께 部落內 指導力形成에 影響을 끼치는 것으로 보여진다.⁸⁷⁾

C: 목현리 - 정부주도형 허향식발전모형 -

1. 墨縣里의 沿革 및 自然環境變化

(1) 沿革: 墨縣里는 약 600년의 긴 歷史를 지닌 典型的인 自然發生的 單位部落으로 口傳에 의하면 部落民들이 갓을 수선해 주며 살았다하여 '묵갓골'이라 불리웠는데 1914년 목현리란 이름으로 變更되었으며 現在 行政區域上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읍⁸⁸⁾에 속한다. 새마을운동과 목현리는 매우 밀접한 關係를 갖고 있는데 1972년 政府에서 선정한 9개 道새마을示範部落⁸⁹⁾의 하나로 選定되어 農村部落 近代化를 目

標로 政府行政機關의 支援下에 급격한 變化를 經驗하였으며 이후 급속한 產業化的 過程을 거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自然環境과 地理的 特性: 목현리는 서울-춘천간 국도 철로변에 위치하여 서울과 32Km 떨어져 있고⁹⁰⁾ 邑所在地 및 미금시와 隣接해 都市近郊村으로 볼 수 있으나 地形上으로는 山間마을에 속하며 시외버스의 運行이 잦아 부락민의 定住生活中心地 役割을 하는 화도읍, 미금시, 구리시, 서울등지와 同日生活圈을 이루고 있다.⁹¹⁾ 특히 周邊地域은 觀光資源이 많으며 農地準保存地域으로 指定되어 있고 現在 135,000평은 宅地開發豫定地區로 選定되어 있는 등 都農행정의 複合性을 띠어 首都圈整備圈域으로 人口集中誘發施設抑制策이 講究되면서도 1980년대 들어 周邊地域에 천마산 스키장, 심신수련장, 유원지 등이 들어서는 등 都市化趨勢가 급속히 進展되고 있다. 마을이 속한 화도읍은 1992년말 현재 總面積 68.49Km²으로 남양주군의 16.3%에 해당하며 이중 農耕地는 13.1Km²(19.1%)이고 林野가 48.73Km²(71.1%)로 대부분을 차지해 山間地域 特性을 보여주며 農家は 2,152호로 32.0%를 차지한다.⁹²⁾ 마을이 位置한 地域은 비교적 傾斜가 緩慢하며 土質은 비옥한 편이다.

2. 部落構成員의 構造的 變化

(1) 人口 및 家口數: 1975년 당시 목현리는 李氏가 26호(33.3%)로 多數를 차지했으나⁹³⁾ 氏族部落으로는 볼 수 없고 총

Table 20. 목현리와 화도읍의 인구 및 가구수 변화, 1975~1993

년 도	1975 *	1992 **	1993(화도읍) ***
가구수	78	1,341	6,843
인구수	437	4,020	22,326
호당평균인구	5.60	3.00	3.26
남 여비율	241 (55.1%:남) 196 (44.9%:여)	2,019 (50.2%:남) 2,001 (49.8%:여)	11,414 (51.1%:남) 10,912 (48.9%:여)
가구증감수(율)	N A	1,263 (1719.2%)	
인구증감수(율)	N A	3,583 (919.1%)	942 (4.5%)
목현리별 구분	목현 1리	목현 2리	목현 3리
세대수	312	456	162
인구수	930	1,569	407
호당평균인구	2.98	3.44	2.51

주:1)* 는 You, 1986, 전거서, p. 220에서 재정리.

2)** 화도읍 통계자료 참고; 목현 1,2,3리 합한 전체 세대수; 1975년 대비 수치.

3)*** 는 남양주군 통계자료, 1993, p. 48 참고; 인구증감율은 전년도 대비 수치

78家口 437名이 살아 規模면에서 農村平均 정도였으며 대부분(67.7%)이 農業에 從事하였으나 서울과 交通편이 容易하여 非農業從事자도 상당수(14.0%)있었으며 당시 1個 里單位 部落이었으나 현재 木현 1, 2, 3里로 行政的 區分이 되어 있다.⁹⁴⁾ 1975-1993년 사이 木현리는 人口 6.7배, 家口數 약 12배의 增加를 보여 人口의 量的膨脹과 함께 部落自體의 많은 變化를 經驗한 것을 알 수 있다.⁹⁵⁾ 特異하게 천마산 스키장이 있는 木현 2里에 木현 1-3里 總人口의 54.0%가 居住하고 있으며 農家가 相對的으로 많은 木현 3里 人口는 14.0%에 불과하여 對照를 이루고 있다.

(2) 年齡別分布 變化: 性. 年齡別 構成現況은 1975년 先行 研究(You, 1986)結果와 큰 差異를 보이지 않는데 性別로는 1975년 男性構成比(55.1%)가 現在 50.2%로 낮아졌고 1975년

당시 14세미만 人口가 29.5%(129명), 15~25세 28.6%(125명), 61세以上 老齡層이 6.2%(27명), 그외 26세~60세(35.7%)의 靑中壯年層으로 構成되어 있었으나 現在 農家의 減少와 比농가의 엄청난 增加로 인해 이런 年齡分布에 큰 變化가 없다.

(3) 家口員規模 및 家族形態: 설문조사에 응한 121家口의 家族形態와 家口員規模를 보면 核家族 形態가 61.2%로 가장 많고 直系家族 類型도 상당수(42호, 43.7%)되며 平均家口員數는 4.94名으로 대부분 4~5名(72호, 59.5%)의 家口員規模를 갖고 있고 老齡夫婦만이 살거나 單身老齡家口는 많지 않아 木현리 전체적으로 老齡層人口의 增加는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非農家 人口의 急增에 따른 結果로 보여지며 女性家口主는 전체 121調査家口 中 9名(7.4%)에 불과하였다.⁹⁶⁾

Table 21. 가구원 규모별 가구수와 가족형태, 1993

가족 유형		가구수(%)	가구원규모(명)	가구수(%)
핵 가 족	단신	3(2.5)	1	3(2.5)
	부부	7(5.8)	2	9(7.4)
	부부+자녀	54(44.6)	3	20(16.5)
	(편)부부+자녀	10(8.3)	4	35(28.9)
	소 계	74(61.2)	5	37(30.6)
			6	25(20.7)
직 계 가 족	(편)부모+부부+자녀	37(30.6)	7	5(4.1)
	(편)부모+(편)부부+(자녀)	5(4.1)	8	1(0.8)
	소 계	42(34.7)	9명 이상	-
기 타		5(4.1)	소 계	121(100.0)
계		121(100.0)	총가구원수	598
			평균가구원수	4.94

(4) 轉入時期와 轉入動機: 121家口主 居住期間을 통해 住民構成員上의 變化를 살펴보면 할아버지나 부모님때 부터 살아 居住期間이 긴 주민들(41명, 33.9%)과 최근 5年以內에 轉入해 온 사람들(42명, 34.7%)로 크게 두그룹으로 나뉘지는

데 居住期間이 긴 住民들의 대부분은 農業에 종사하며 最近에 轉入온 사람들은 營農活動과는 無關한 非農家들로 部落의 住民構成員 變化는 이들 比농가의 轉入에 크게 起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22. 목현리 가구주의 전입시기와 전입동기, 1993

전입시기별		전입동기별	
구분	가구주수(%)	구분	가구주수(%)
할아버지 때 부터	25(20.7)	선조에 대한 자식의 본분으로	28(23.1)
부모님 때 부터	16(13.2)	친척들이 살고 있어서	9(7.5)
최근 20~10년	15(12.4)	농토가 있기 때문에	12(9.9)
최근 10~ 6년	11(9.1)	직장이나 사업장과 관련하여	23(19.0)
최근 5년 이내	42(34.7)	집값이 싸기 때문에	28(23.1)
일시체류	7(5.8)	공기나 주위환경이 좋아서	11(9.1)
무응답	5(4.1)	기타 및 무응답	10(8.3)
계	121(100.0)	계	121(100.0)

轉入(居住)動機로 '농토가 이곳에 있어', '선조에 대한 자식의 본분으로'등 農村部落이 갖는 慣習의特性이나 定住性에 기인한 農村社會의 居住要因을 든 경우는 대부분 農家이며 '집값이 싸기 때문에' 또는 職場, 事業關聯 비농업관련 轉入要因을 든 경우가 42.1%(51명)나 되어 대부분이 非農業職에 從事하고 있음을 代辯하며 '공기나 주위환경이 좋아서'(11명, 9.1%)도 있어 近郊農村地域으로서 都市에 비해 相對的으로 나은 環境이 居住要因으로 지적됨은 注目할 점으로 볼 수 있고 이들은 非農家나 老齡層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3. 經濟的 構造 變化

(1) 主要 經濟生產活動的 變化

가) 耕地所有規模 및 利用構造: 1970년대 初期 목현리는 米穀生産이나 菜蔬栽培등 山間部落의 一般의 農業生産構造와 유사하여 별다른 特性을 갖지 못했으나 1972년 새마을示範部落으로 選定된 후 가축사양, 과수, 園藝등이 紹介되어 複合營農形態로 변했으며 특히 畜産業이 많이 발전하였다.⁹⁷⁾ You(1986:205)의 調査에 의하면 1975년 戶當耕地面積이 0.8정보의 小規模였으며 總 耕地面積의 85%(298.4정보)가 林野였고 田畝⁹⁸⁾은 47.0정보로 13.4%에 불과했다. 현재 목현리 全體家口를 調査하기에는 限界가 있어 調査된 33農家の 調査結果를 보면 대부분(26명, 78.8%) 2,000평미만 耕地를 利用하고 있어 여전히 零細함을 보여준다. 상당수(18명, 54.5%)는 3,000평이상 耕地所有를 希望하여 規模營農을 원하나 人

力이나 資金不足으로 더 이상의 耕地를 원치 않는다고 應答한 경우도 39.4%(13명)나 되었다.

나) 耕地所有權構造: 1975년 당시 住民들의 土地所有權은 대체적으로 낮았으며 父母의 遺産으로 물려받거나 자신이 買入한 경우가 大部分이었고 土地改革을 통한 獲得은 미미한 정도였다.⁹⁹⁾ 土地所有獲得 類型은 별다른 差異가 없으며 현재 대다수(25호, 75.8%) 農家は 90~100%의 높은 土地所有權을 갖고 있으나 非農家中에서 農耕地를 保有한 家口는 7戶(5.8%)에 不過하여 農家の 減少와 非農家數의 急增現狀에서 볼 때 상당부분 土地의 外部人 占有化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다) 經濟生產構造: 현재 목현리 農業生産基盤은 專業農家の 대부분이 農作物生産과 畜產物生産을 主要所得原으로 들고 있듯이 벼농사와 젓소사육을 통한 畜산업이 主從을 이뤄 米穀生産, 高等菜蔬, 果樹, 特用作物栽培, 畜産등 1970년대 중반 多樣한 複合營農을 하던 것과는 差異를 보이고 있다. 특이한 점은 兼業農家の 대부분(80.0%)이 비농업소득을 主要所得原으로 들어 農外活動에 置重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專業農의 3家口(10.7%) 역시 農外所得을 主要所得原으로 들어 營農規模의 零細性을 알 수 있다. 家口主와 婦人의 所得을 합한 경우의 主要所得原 調査結果 33農家の 39.4%(13호)가 非農業所得을 들어 상당수 農家が 農外所得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部落周邊에 많은 小規模工場이나 會社가 있고 품팔이등 就業이나 勞動力利用與件이

중기 때문에 보여진다.¹⁰⁰ 전체적으로 목현리의 經濟的基盤은 農村部落이면서도 비농가의 絶對的 數的 增加로 인해

이미 農業中心에서 非農業中心으로 변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23. 목현리 가구주의 주요소득원 현황, 1993

주요소득원구분	전업농가(%)	겸업농가(%)	비농가(%)	비 고
농작물생산소득	9 (32.1)	—	—	벼, 고등채소 젓소 13, 양계 2 양봉 1
축산물생산소득	15 (53.6)	1 (20.0)	—	
특용작물생산소득	1 (3.6)	—	—	
농업외소득	3 (10.7)	4 (80.0)	88 (100.0)	
소 계	28 (100.0)	5 (100.0)	88 (100.0)	
계	121 (100.0)			

(2) 家口別 經濟力構造: 1975년 목현리의 戶當 年平均收入은 全國農家平均 보다 13.2% 높아 양호한 편이었는데¹⁰¹ 1993년 戶當平均收入은 1,543만원으로 全國農家平均 對比 1배, 支出은 1,203만원 1.2배로 1975년 대비 비슷한 水準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農家보다 非農家の 높은 收入에 크게 基因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農家 및 非農家別 家口經濟를 比較한 결과 1,500만원 이상의 所得을 올리고 있는 家口는 非農家の 경우 38家口(43.2%)에 이르는데 반해 農家は 7家口(21.2%)에 不遇하여 상당한 差를 나타내었다.

1975년 당시 全體家口の 54.0%(39호)가 銀行이나 農協

및 個人등에 負債를 지고 있었으며 負債償還 負擔이 컸던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現在 負債가 없는 경우는 調査家口 중 農家 10.0%, 非農家 55.3%로 農家の 負債負擔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負債償還 對象機關으로는 農畜協이 가장 많고(34호, 55.7%) 個人이나 銀行등에 빚을 진 경우는 9가구(14.8%)에 지나지 않으며 農家は 農土, 農器具, 家畜購入費, 農事費用등 대부분이 營農활동에 關聯된 負債原因을 들었고 비농가는 事業失敗, 家屋購入, 聚落構造改善등 다양한 原因을 들었으며 특이하게도 子女教育費를 主要負債 原因으로 든 경우는 없었다.

Table 24. 목현리 농가, 비농가별 연평균 수입 및 지출, 1993

구 분	수 입		지 출		부 채	
	농 가	비농가	농 가	비농가	농 가	비농가
없 다	—	—	—	—	3 (10.0)	42 (55.3)
600만원 미만	2 (6.7)	4 (5.3)	3 (10.0)	4 (5.3)	4 (13.3)	7 (9.2)
600 ~ 1000 "	5 (16.7)	6 (7.9)	10 (33.3)	6 (7.9)	7 (23.3)	4 (5.3)
1000 ~ 1200 "	10 (33.3)	10 (13.1)	6 (20.1)	18 (23.7)	8 (26.7)	11 (14.5)
1200 ~ 1500 "	6 (20.1)	18 (23.7)	7 (23.3)	20 (26.3)	4 (13.3)	—
1500 ~ 2000 "	4 (13.2)	22 (28.9)	3 (10.0)	14 (18.4)	2 (6.7)	2 (2.6)
2000 ~ 2500 "	3 (10.0)	10 (13.2)	1 (3.3)	8 (10.5)	2 (6.7)	3 (3.9)
3000 ~ 4000 "	—	4 (5.3)	—	4 (5.3)	—	3 (3.9)
4000만원 이상	—	2 (2.6)	—	2 (2.6)	—	4 (5.3)
소 계	30 (100.0)	76 (100.0)	30 (100.0)	76 (100.0)	30 (100.0)	76 (100.0)

주: 조사가구중 정확한 수치를 제시한 가구주만의 진술에 기초, 농가는 겸업농가 포함.

(3) 農業勞動力構造의 變化

가) 農家와 非農家: 1975년 당시 農家は 60호로 전체 78호의 76.9%에 달했고 山間地域이면서 都市近郊에 위치한 地理의 條件으로 비농가도 상당수(23.1%) 있었다. 現在 農家와 非農家の 수치는 알 수 없으나¹⁰²⁾ 1980년대 들어 周邊地域의 變化에 따라 비농가 人口가 急增하여 부락의 産業構造面에서 非農業 中心으로 急速한 變化를 보이고 있다.

나) 營農從事率과 營農參與率: 121調查家口中 兼業農을 포함한 33農家の 人口는 137명, 平均家口員數는 4.15명으로 木峴리 全體의 平均家口員數 3.0명 보다 크며 營農從事者가 63명으로 營農參與率은 45.3% 이며 家口當 1.91명이 영농활동에 參與하고 있는데 주로 夫婦가 함께하며 子女들의 營農參與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¹⁰³⁾ 子女 가운데 營農後繼者를 確保하고 있는 경우는 4家口(12.1%)에 불과하다.

다) 雇用勞動力과 營農機械化: 1975년 당시 38農家(63.3%)가 雇用勞動力을 이용하였고 대부분(23가구)은 50일 이내의 短期間만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¹⁰⁴⁾ 현재 33農家中에서 24家口(72.7%)가 雇用勞動力을 전혀 이용치 않으며 8家口(24.2%)가 50일 이내 短期間만 사용하고 있어 利用度는 더욱 낮아졌고 營農規模와 農家經濟의 零細性에 따라 대부분 夫婦中心의 영농활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營農機械化 側面에서는 1975년 당시 農業用水 供給을 위한 모터펌프, 트랙터, 스프레이어, 탈곡기 등 半自動式 農機械를 상당수 保有하여 친척간 또는 이웃간 서로 빌려주어 사용하였는데 1992년 현재 경운기(68대)와 분무기(45대)를 제외한 기타 農機械 保有數量은 많지 않으며 착유기, 냉각기 등이 많아 畜産爲主의 部落營農構造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4. 社會·文化的 構造 變化

(1) 社會組織構造

가) 部落行政組織: 1975년 경기도 양주군 화도면의 1個 法定里였던 木峴리는 현재 南陽주군 화도읍¹⁰⁵⁾ 10個 法定里 중의 하나로 木峴 1·3리의 3個 行政里로 構成되어 있으며 木峴 1里에 3個, 木峴 2里에 1個 등 4個 自然部落이 있다. 1975년 部落의 特異한 行政組織으로 작목생산반, 가축생산반, 홍보반, 회계반 등 9개 部署로 된 새마을홍보위원회가 있었고 그의 一般의으로 農村部落에서 볼 수 있던 산림계, 4H 클럽,

青年會, 婦女會등이 있었다. 현재 行政里의 主要機構로 里長, 班長, 里開發委員會등이 있고 南陽주군 運營規則과 設立規程에 根據하며 기타 青年會나 婦女會 등의 새마을관련조직과 親睦과 相互扶助를 위한 각종 親睦契가 있다. 部落關聯事業의 計劃이나 推進은 班常會등의 住民會議를 통해 이루어지나 農家와 非農家 住民間 接觸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¹⁰⁶⁾

나) 部落經濟協力組織: 1975년 당시 購買나 販賣事業, 또는 信用事業을 추진하는 共同體의 經濟協力組織은 없었으나 새마을시범부락으로 指定되면서 많은 새마을사업이 추진되어 두레, 산림계 등의 形態를 통한 住民들의 相扶相助 정신은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You(1986: 201)는 당시 問題點으로 새마을示範部落으로 行政機關에서 엄청난 規模의 資本을 投資하여 대부분의 새마을사업이 官主導로 進行되어 部落發展이 주민들에 의해 추진되어지기 보다 下向式發展이 이루어진 점을 指摘하였다. 오늘에 와서 住民共同體의 努力에 의해 部落事業이 추진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¹⁰⁷⁾

다) 主要農業關聯接觸網: 1970년대 木峴리 주민들은 農村指導所나 새마을홍보위원회 등과의 빈번한 접촉이나 各種 農村指導教育事業 參與를 통해 영농관련 情報나 技術을 積極的으로 受容코자 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¹⁰⁸⁾ 현재도 많은 農家口(18명, 54.5%)가 年間 3번이상 각종 指導教育事業에 參加한다고 밝혀 여전히 높은 熱意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農業關聯 專門書籍등을 통한 새로운 技術이나 情報受容度는 1970년대 대비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木峴리의 諸般 營農情報傳達 體系는 大衆媒體¹⁰⁹⁾ 보다는 農村指導所나 農畜協등에 勤務하는 營農指導子들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住民教育水準: 1975년 당시 住民들의 教育水準은 서울과 隣接한 關係로 高等學校卒業 이상이 11.9%(35명)으로 높은 편이었는데 現 家口主와 婦人들의 教育水準 역시 45.9%(106명)가 高卒以上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非農家口의 增加에 크게 기인한 結果로 보여진다.¹¹⁰⁾ 대부분의 父母가 子女를 專門大學 이상의 教育을 시키고자 할 만큼 높았던 子女教育 熱意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¹¹⁾

Table 25. 목현리 주민의 교육수준 변화, 1975, 1993

구 분	1975년*	1993년
국민학교 졸	138 (46.8)	43 (18.6)
중학교 중퇴	N A	10 (4.3)
중학교 졸	80 (27.2)	39 (16.8)
고등학교 중퇴	N A	18 (7.8)
고등학교 졸	38 (12.9)	78 (33.8)
전문대학이상	12 (4.1)	28 (12.1)
기 타	27 (9.2)	15 (6.5)
계	295 (100.0)	231 (100.0)

자료 : 1975년 수치는 You, 1986, 견제서, p. 220에서 재정리; 재학 중은 졸업으로 포함.

주 : 1993년 자료는 가구주와 부인들만의 교육수준을 나타낸다.

(3) 住居 및 文化環境

가) 새마을事業과 住居環境變化: 1972년 京畿道 새마을시범부락으로 選定¹¹²⁾된 이후 목현리는 住宅改良, 耕地整理, 公共施設¹¹³⁾ 增改築 등 外形의으로 엄청난 變化를 經驗하였다. 각종 새마을사업은 地方政府의 支援 및 補助와 住民의 共同投資 形式으로 이루어졌으나 全體 事業費¹¹⁴⁾의 약 56%를 政府機關에서 投資하여 住民自體的 사업이기 보다 政府機關에 의해 추진된 사업의 性格이 더욱 컸다고 볼 수 있고 1972년 이후의 새마을사업은 農家所得增進에 비중을 두어 農路擴張, 農業用水施設改善, 堤防工事등과 함께 한우, 유우, 양을 주축으로 한 畜産分野의 擴充, 비닐하우스栽培 등의 영농관련 사업이 추진되었다.¹¹⁵⁾ 이런 새마을사업의 결과로 住居環境은 크게 改善되어져 You(1986 : 217)는 당시 목현리의 주거환경은 全國農村에서 最高水準이었다고 밝혔다. 현재 새마을사업 滿足度 調査結果 所得增大事業과 生産基盤造成事業에 관해 肯定的으로 評價하여 당시 部落經濟 발전상과 聯關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環境改善事業, 保健衛生事業, 教育訓練事業등에 대해서는 相對的으로 滿足度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나) 文化施設 및 宗教: 1975년 調査家口의 6.9%(5호) 만이

실내욕조를 保有하고 있었고 23.6%(17호)는 우물을 이용하는 등 住居環境이 全體 住民을 滿足시킬만한 水準은 되지 못했으나 72.2%(52호)가 개량식 화장실을 保有하고 大多數가 라디오를 保有하였으며 TV 21대, 전화 6대 등 大衆媒體의 補給率이 매우 높아 You(1986 : 218)는 당시 주민들의 生活水準은 中上流層에 속한다고 보았다. 現在 電氣 電子 家庭用品의 保有率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가용 保有家口도 상당수(36호, 29.8%) 있다. 現住民들의 宗教는 121調査家口 중 불교 25.6%(31호), 기독교 22.3%(26호)를 차지하였으며 特異한 점은 宗教가 없다고 應答한 家口가 39호(32.2%)로 가장 많았으며 巫俗信仰을 믿는다고 答한 경우는 없었다.

(4) 住民意識과 指導力構造

가) 子女營農承繼: 목현리 역시 子女들의 영농승계에 대해 매우 否定的인 意識을 나타내었는데 33農家口 중 자녀가 代를이어 農業에 종사하기를 希望한다고 應答한 경우는 5명(15.2%)에 불과하고 實質的으로 子女 中 營農後繼者를 確保하고 있는 家口도 4호(12.1%)에 불과해 農家の 減少 現狀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子女가 成長하여 함께 살기를 원하는가의 質問에는 肯定的으로 答한 사람(68명, 56.2%)이 오히려 많아 注目되는데 이는 상당수 住民들이 목현리의 居住條件에 대해 肯定的인 認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子女와 함께 살기 원치 않는 主要原因으로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26명, 23.6%), 子女들이 원치 않음테니까(21명, 19.1%)등을 指摘하여 多분히 子女들의 觀點에서 나온 應答結果로 보여진다.¹¹⁶⁾

나) 住民의 社會移動: 다른 部落들과 마찬가지로 父母들의 社會的 移動은 활발하지 않았던 反面 子女들의 社會的 移動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1975년 당시 전체 78호 중 35호(44.9%) 家口主가 그들의 子女가 서울이나 기타 大都市 地域에 살기를 원했고 子女教育을 주요 移住原因으로 밝힌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현재 移住를 계획하고 있는 家口는 18호(14.9%), 移住計劃이 없는 家口는 71호(58.7%)로 住民들의 社會的 移動이 急速히 進展될 것으로는 볼 수 없지만 移住計劃에 대해 모르겠다고 應答한 26家口(21.5%)를 포함하면 36.4%(44家口)가 移動可能 人口로 볼 수도 있다.¹¹⁷⁾

Table 26. 부락발전 장애요인, 이주계획, 지도자 인식현황, 1993

발전 장애요인	빈도(%)	이주계획	빈도(%)	지도자 인식	빈도(%)*
자본부족	25(20.7)	있 다	18(14.9)	부락연장자	10(5.3)
교통불편	46(38.0)	없 다	71(58.7)	이 장	56(29.6)
인력부족	7(5.8)	모르겠다	26(21.4)	영농지도자	24(12.7)
농업정책 부재	8(6.6)	무 응 답	6(5.0)	일선행정관리	6(3.2)
토지구모의 영세	7(5.8)			청소년 지도자	9(4.8)
상호무관심, 이질감	15(12.4)			반 장	16(8.5)
지도력 부족	3(2.5)			없 다	42(22.2)
기타 및 무응답	10(8.2)			기타, 무응답	26(13.8)
소 계	121 (100)	소 계	121 (100)	소 계	189 (100)

주: *는 지도자를 두명 선택하라고 한 문항에 응답한 빈도수치 임.

다) 部落變化像에 대한 認識: 현재 상당수 주민들은 부락의 諸般變化가 政府政策(33명)이나 一線行政管理(17명)들에 크게 起因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部落指導자나 部落民 자신들에게 責任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많지 않아(14명) 內的要因 보다 부락의 外的要因에 變化의 根本原因이 있는 것으로 把握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部落發展의 障礙要因으로 交通불편(38.0%)을 가장 많이 指摘하였고 그의 資本不足과 住民間 相互無關心과 異質感등의 順으로 지적하였으며 農業政策不在나 土地規模¹⁸⁾ 人力不足등은 많지 않아 다분히 非農業의 特性을 나타내고 있다.

라) 指導力構造: 1975년 당시 목현리의 指導力構造는 氏族集團의 年長者¹⁹⁾, 새마을사업 추진을 위해 地方行政機關에서 나온 行政指導자, 새마을지도자, 4-H회, 청년회, 부녀회 등의 새마을운동 關聯 部落內 中間指導자²⁰⁾ 등으로 크게 3분되어 있었는데 現在 목현리의 指導力構造는 많은 差異를 나타내어 部落年長者, 一線行政管理, 中間指導자 등의 指導力은 상당히 미약해진 반면 상당수가 里長(29.6%)이나 營農指導자(12.7%)²¹⁾를 부락내 지도자로서 認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부락내 指導자가 없다고 應答한 사람들이 22.2%에 달해 實質的으로 部落住民들의 共同體의 意識이나 凝聚力를 強化시킬 強力한 精神的 指導力을 發揮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事例部落變化의 比較分析

1. 事例部落의 特徵의 變化와 共通的 變化

(1) 部落發展推進 主體別 變化概觀

農村部落發展이 上向式으로 計劃되고 推進되는 것은 가장 理想的인 과라다임으로 下向式發展模型에 비해 永續性과 보다 큰 實效를 거둘 수 있게 됨은 一般的인 妥當性을 지닌 論理로 認識되나 이를 실현함에 있어서의 어려운 諸般條件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는 찾아 보기 힘든 발전모델'(류태영, 1984 : 14)²²⁾이란 觀點에서 善隣村과 雲橋리는 우리나라 농촌부락의 發展推進類型上 特異한 部落들로 볼 수 있으며²³⁾ 墨縣리는 새마을운동 初創期 道示範部落으로 選定되어 政府의 강력한 財政的 投資와 人的 支援下에 새마을指導團이 部落組織을 활성화하여 住民參與를 유도함으로써 示範農村 建設을 목표로 한 典型的인 官主導中心 下向式發展 모델로 볼 수 있다.

部落發展推進主體上的 特性을 지닌 이들 3個 單位部落이 지난 30여년간의 급속한 產業化 過程을 거치면서 나타난 變化는 程度의 차이는 있으나 農村人口의 減少와 高齡化, 農家經濟의 相對的 零細性, 農業의 斜陽化, 畝의 空間으로서의 魅力喪失, 傳統的 價値나 文化的 特性的 瓦解등 全般的인 農村社會構造上的 變化樣態와 유사한 結果를 보여주고 있다. 住民共同體中心의 理想的 模範村으로 발전하던 선린촌은 隣近地域의 급속한 都市化와 營農規模上的 限界등 여러 가지 內外的 要因으로 1970년 중반을 기점으로 활발히 이

루어진 分村과 함께 部落共同體의 特性이 점차 사라졌고 部落指導子中心의 上向式모델로 1960년대 운교조합,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影響으로 刮目할 발전을 하던 운교리는 山間地域에 위치한 地理的 與件으로 都市化의 影響은 크게 받지 않았으나 雲橋組合의 合併이나 指導力構造의 變化등으로 部落의 共同體의 求心點이 약화되면서 産業化期間에 나타난 農村社會의 諸般 變化像과 흡사한 變化樣態를 보였고 官主導形 下向式모델의 대표적 部落으로 山間地域이면서 서울과 인접한 墨縣리는 주변지역의 급속한 都市化 現狀과 새마을운동의 沈滯로 非農業爲主의 部落經濟構造를 가질 만큼 큰 變化를 나타내었다. 결국 이들 3個 部落은 현재 官爲主의 새마을관련사업을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部落發展을 推進하는 求心點을 거의 喪失하여 下向式發展모델 類型의 性格을 강하게 나타내며 그나마 운교리의 경우 새마을협업농을 통한 共同體的 事業을 실시하고 있어 약간의 差異를 보이고 있다.

(2) 部落周邊環境의 變化

村落의 地形的位置와 交通的位置는 部落의 形態, 發達,

機能과 매우 밀접한 關係를 갖고 있다.¹²⁴⁾ 農村地域 住民들의 生活圈은 交通여건의 好轉으로 過去에 비해 都市近郊部落, 山間部落, 中間部落 할 것 없이 全般적으로 매우 넓어졌으나 單位部落이 처한 自然地理的 條件이나 주변지역의 變化에 따라 部落自體의 變化 역시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선린촌은 1970년대 各種 經濟協力組織을 통해 部落自體 또는 서울이 中心生活地 機能을 하였으나 현재 隣近地域의 급속한 都市化와 購買組合, 販賣組合등 각종 部落공동체 組織의 瓦解 影響으로 하남시가 中心地機能을 하고 있고 목현리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여 邑所在地(마석우리), 서울, 미금시 등이 中心地機能을 하고 있다. 운교리의 경우 面所在地에 位置해 있으면서도 南原이 中心地機能을 하는 것은 特異하다고 볼 수 있으나 한 研究¹²⁵⁾에서 平野地帶에서는 面所在地가 中心都邑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은 반면 山間地域에서는 대부분 面所在地의 中心地機能이 잘 발달되어 있지만 部落과 隣接해 있는 경우는 一般적으로 中心地機能은 거의 遂行치 못하는 것으로 밝혔는데 운교리도 部落이 위치한 面所在地보다 南原市內가 오히려 部落民의 生活中心地 機能을 하고 있어 이와 유사한 結果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27. 部落別 制限여건의 開發적 變化 比較

주변환경변인구분	선린촌	운교리	목현리
구행정소재지	광주군 동부면 천현리	남원군 대산면	양주군 화도면
현행정소재지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남원군 대산면	남양주군 화도읍
지리적특성구분	도시근교촌	산간부락	산간부락+도시근교촌
공간구조적특성	공공, 경제, 거주지역구분	일반적형태	목현1~3리지역적구분
현중심생활권	하남시	면소재지, 남원	읍소재지, 서울, 미금시
주민이동요건	양호(출퇴근시 제외)	양호(시내버스운행)	불량(버스하루 2회)
주변지역산업구조	대도시 비농업위주	전형적 농업지역	도시화추세 농업지역
현지도력구조	지도력구조 상실	이장중심+연장자	이장중심+영농지도자
주요장애요인	그린벨트지역 지정	노동력구조, 자본부족	교통불편, 노동력구조
부락장래	비농업중심(탈농업화)	농가의 점진적 감소	농가감소 비농업중심

一般적으로 3個部落 中 서울 近郊에 위치한 선린촌이 수차례 行政上의 所在地變化, 脫農業化의 岐路에 있는등 상대적으로 變化樣態가 가장 두드러짐은 都市化와 都市近郊村과의 밀접한 聯關關係를 代辯하는 것으로 單位部落의 地理的 與件이 農村社會의 主要變動要因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선린촌의 변화는 크게 2가지 要因에 기인한 것으로 첫째, 1970년 마을의 綱領 및 規約¹²⁶⁾을 改正하여 마을會員制度를 고쳐 隣接農家를 회원으로 加入시켜 部落擴張을 꾀한

過程에서 점차 共同體의 一體感이 약화되었고 限定된 토지 규모에 따른 영농규모의 零細性을 초래했으며 둘째, 1970년대 周邊地域의 급속한 都市化와 특히 1974년 그린벨트地域으로의 指定 및 其他 子女教育, 家口別 經濟力의 差異 深化, 주민들의 理想村建設 理念上의 葛藤등으로 隣近地域으로의 分村이 확산되면서 점차 農家は 감소하고 非農家は 증가하는 部落構成員上의 變化가 이루어져 초기 善隣村이 추구한 住民共同體의 理想村建設 理念은 거의 상실한채 오늘에 이

르고 있는 것이다. 선린촌의 부락설립 당시 空間構造上의 效率性과 結合力을 피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키브츠나 모샤브에서 볼 수 있듯이 계획적¹²⁷⁾으로 설계한 마을 空間構造上의 변화는 그린벨트 影響으로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운교리의 諸般條件上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一般의인 農村社會變化狀과 類似하나 운교조합의 面組合 合併¹²⁸⁾으로 因한 部落 共同體事業의 減少와 새마을운동의 沈滯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指導力構造의 변화 역시 主要變數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목현리의 경우 山間地域에 속하나 觀光資源이 많고 首都圈整備地域으로 指定되는 등의 影響으로 周邊地域의 急速한 都市化가 이루어져 行政的으로도 목현1~3리로 區分될 만큼 非農業人口의 急增현상을 보여 새마을운동의 沈滯以後 많은 變化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목현리나 선린촌은 향후 都市의 기능이 점차 強化되면서 都市郊外化 地域으로 變身하게될 可能性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선린촌은 그린벨트 政策變化에 따라 農村으로서의 機能은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도 매우 높은 실정이다.

(3) 部落構成員上의 變化

家口 및 人口構造의 變化要因을 크게 人口增減의 自然的 要因과 社會的 要因으로 區分할때 지난 20여년간 調查對象 部落들의 人口構造 變化는 出生, 死亡에 의한 自然的 要因보다는 周邊條件變化에 따른 轉出入의 社會的 增減要因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外形의 規模上 가장 큰 變化를 보인 部落은 목현리로 인구수 9배, 가구수 17배의 엄청난 量的 膨脹을 하였는데 그 絕對的 原因은 비농가의 急增에 기인하는 것으로 首都圈에 인접하여 交通수단의 발달로 同日 生活圈을 유지할 수 있으며 특히 部落隣近地域의 都市化추세에 따른 非農業職 就業機會의 증가, 낮은 專賣價등의 상대적인 居住要件의 良好함에 따른 多분히 비농업적 性格에 起因한 變動結果로 볼 수 있다. 全國的 農家數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목현리의 農家數는 오히려 增加한 점은 特異하나 이 역시 農外所得 機會가 증가한 것과도 상당한 關聯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 주목된다. 특히 스키장이 있는 목현 1, 2리는 外觀上 농촌부락의 特徵이 점차 사라지는 반면 相對的으로 외진 지역에 위치한 목현 3리에 農家가 密集되어 있는 점은 단위부락과 지리적 條件과의 關連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示唆하는 바가 크다. 결국 목현리의 急速한 人口 및 家口數의 증가는 大都市近郊에 위치한 점, 隣近에 自然觀光資源이 많은 점, 住民 移動性의 良好, 隣近地域의 都市化 現狀 등 部落外的인 社會變化 要因에 기인하여 外形上 農村部落의 形態를 유지하고 있으나 ‘都市의 郊外化 現狀’¹²⁹⁾에 따라 典型的인 農村部落의 特性보다 都農複合의 性格을 강하게 나타내는 특수한 形態의 地域社會를 構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변화는 이미 하남市에 포함된 善隣村의 變化趨勢와도 類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28. 인구, 가구수, 가족유형, 주민교육수준의 변화 비교

구 분	선린촌	운교리	목현리	전국농촌평균
기준년도가구수	52호	155호	78호	2,379천호
현가구수	32호	146호	1,341세대	1,641천호
증감율	-38.5%	-5.8%	+1,719%	-31.0%
기준년도인구수	250명	948명	437명	13,224천명
현인구수	134명	461명	4,020명	5,707천명
증감율	-46.4%	-51.4%	+919.1%	-56.8%
호당평균인원	4.19명	3.15명	3.0명	3.48명
현주요가족유형	핵가족(76.0%)	핵가족(79.2%)	핵가족(61.2%)	핵가족(NA)
기준년도교육수준	매우높음	높음	높음	평균
현가구주교육수준	높음	낮음	높음	평균

주 : 1)부락별 기준년도는 1975, 1976년 기준, 전국농촌평균은 1975년 기준 수치.

2)부락별 가구,인구수는 부락 총 가구 및 인구수, 전국평균은 농가 및 농가인구 수치.

자료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 센서스, 1993년.

이에 반해 운교리는 家口數 변화는 크지 않지만 人口數면에서 -51.4%의 減少를 보여 지난 20여년간 상당한 社會的移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어 1980년대를 기점으로 住民들의 轉出要因은 많이 발생한 반면 목현리나 선린촌과 같이 새로운 住民의 轉入을 誘導할 수 있는 뚜렷한 要因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운교리는 선린촌과 목현리와는 對照的으로 部落人口의 高齡化¹³⁰가 農家口를 중심으로 두드러져 向後 이들 老齡層 農家口主가 農業職에서 은퇴할 것으로 보면 營農後繼者의 未確保로 인한 部落人口의 감소는 必然的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운교리는 産業化過程을 통해 部落의 人口構成上 큰 변화를 經驗하는등 典型的인 農村社會 변화상과 類似한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1次産業을 위주로 하는 單位農村部落으로서의 機能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볼 수 있어 선린촌과 목현리가 1980년대 들어 農村으로서의 機能보다는 3次産業을 위주로 한 都市的 機能 이 強化되는 것과는 對照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社會를 구성하는 基本單位가 되는 社會集團인 '가족의 생태적 구조와 기능에 대한 연구역시 農村社會學에 있어 매우 중요한 比重을 차지'하는데¹³¹ 3個部落 모두 핵가족유형이 절대적으로 많고 家口員規模가 작은 點등 韓國社會의 家族構造變化上에 대한 研究(변화순, 1991; 설동훈, 1991)들과 유사한 結果를 보여 産業化期間 農村地域의 傳統的 家族生活과 家族構造¹³²의 변화상을 그대로 나타내었다. 前述한 바와 같이 운교리의 家族構成上 특징은 單身老齡家口나 老齡夫婦家口, 無職 老齡 非農業者가 많아 향후 部落의 人口및 家口規模의 減少를 豫見할 수 있고¹³³ 家族類型上 운교리의 변화는 주로 子女들의 移寸에 기인한 結果로 보여지며 이는 목현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선린촌은 1970년대 활발히 進行된 分村過程에서 子女와 父母가 함께 全家口가 轉출한 경우가 많은 差異가 있다.

부락 家口主를 對象으로 살펴본 教育水準은 선린촌과 목현리의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實質的으로는 대체로 높은 現教育水準이 상당부분 非農家口主의 增加에 기인하고 있어 1970년대와는 差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운교리의 경우는 全體家口主들의 教育水準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高學力 子女들의 移村과 低學力의 家口主와 婦

人들의 定住性 그리고 非農家口의 증가가 뚜렷하지 않은 것에 起因한 結果로 볼 수 있다.

(4) 部落經濟生産構造의 變化

단위부락의 零細小農構造는 우리나라 農家經濟力의 劣惡性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根本要因으로 지적되나 1970년대 선린촌, 운교리, 목현리의 戶當耕地面積은 전국농촌평균 0.94ha 보다 적은 規模를 가졌으면서도 家口別所得이 全國農家 對比 선린촌 2.2배, 운교리 1.6배등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水準을 유지하여 單位部落의 經濟的 發展은 '영농규모는 농가경제력의 함수'라는 一般的 等式 이외에도 營農形態上의 技術集約性, 부락자체의 經濟生産形態, 部落構成員 特性 등 많은 要因들이 작용함을 보여주었다.¹³⁴

1993년 현재 調查部落들의 收入 및 支出상의 相對的 低下¹³⁵는 영농규모의 零細性, 農業生産性 低下, 低農產物 價格政策등 前述한 많은 要因에 의한 結果로 볼 수 있으며 선린촌과 목현리의 農家經濟力이 운교리에 비해 나은 것은 畜產業과 米穀生産爲主의 농업생산구조상의 差異와 非農業生産所得 獲得與件의 差異가 主要 要因으로 作用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대부분 農家の 負債 主要原因으로는 부락별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農事費用이나 農地, 農機械, 家畜購入등 영농활동과 관련한 것이 가장 많고 生活用品이나 個人的인 欲求充足을 위한 負債要因은 거의 없어 대부분의 農家가 나름대로 劣惡한 영농현실에도 持續的인 投資를 해 온 것으로 볼 수 있고 子女教育費 역시 상당한 負擔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¹³⁶ 부채상환 대상기관으로는 農畜協이 절대적으로 많고 個人이나 銀行등에 부채를 진 경우는 少數에 불과해 1970년대와 차이를 보였다. 결국 收入, 支出 및 負債現況을 통해 본 家口別 經濟構造上의 變化는 3個部落 전체의 經濟的 基盤이 1970년대에 비해 産業化의 變化過程을 거치면서 發展보다는 오히려 상당수준 退步하였음을 나타내어 産業社會化 過程은 이들 單位部落의 經濟에 肯定的이기 보다는 否定的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共通的 變化結果는 産業化過程에서의 農業, 農村分野의 工業, 都市分野의 相對的인 低成長¹³⁷을 함축하는 農業의 斜陽産業化 現實을 대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Table 29. 가구별 경제력구조의 변화 비교

호당경제력구분(원)	선린촌	운교리	목현리	전국농가	도시근로자
기준년도평균소득	1,811천	1,278천	925천	817천	645천
비교년도평균소득	17,181천	10,895천	15,430천	14,505천	16,273천
기준년도평균지출	1,099천	691천	796천	598천	565천
비교년도평균지출	11,497천	8,794천	12,030천	10,046천	11,303천
기준년도부채상환	낮은수준	높은수준	높은수준	33천	NA
비교년도평균부채	7,241천	5,982천	5,126천	5,683천	NA

주 : 기준년도는 1975년 수치이며 비교년도(1993)는 조사된 가구만의 응답결과에 기준
 자료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물통계연보; 농협중앙회, 농협연감, 1993; You, 전계서, 1986

1993년 현재 調査對象部落의 戶當耕地面積은 약간의 증가를 보였으나 여전히 全國農家平均의 1.26ha¹³⁰보다 적어 零細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선린촌의 경우 상당한 農家數의 減少에도 불구하고 耕地面積과 耕地所有權이 적어 分村過程에서 耕地의 都市資本 占有化가 특히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며 운교리의 경우 山間地域에 位置하여 상대적으로 土地의 所有權 移轉이 적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山間地域이지만 周邊地域의 都市化 趨勢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목현리 農家の 耕地所有權이 높은 점은 특이하다.

이들 3個 部落의 주요 農業生産作目別 經濟生産構造는 1970년대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선린촌은 都市近郊에 위치한 立地條件, 限定된 土地規模, 蓄積된 技術 등에

기초한 영농효율성 增大를 위한 養鷄中心構造¹³⁰에서 상대적인 養鷄規模上的 減少 (Table 6. 참고)와 養豚農家の 증가로 營農構造가 多樣해 진 변화를 보였고 米穀生産中心의 農業構造를 갖고 있던 목현리는 1970년대 새마을 所得事業의 일환으로 추진된 畜産業의 獎勵로 인한 畜産家口의 增加가 두드러지며 운교리의 生産構造는 별다른 變化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이들 부락에 있어서 共通的인 經濟生産構造上的 變化는 비농가와 兼業農家の 증가에 의한 非農業生産所得의 比重 增加, 農業經營規模의 零細性에 따른 營農效率性의 減少, 共同體의 生産構造의 瓦解, 農業勞動力構造의 質的 低下등으로 要約될 수 있다.

Table 30. 부락별 주요 경제생산구조의 변화 비교

경지면적	선린촌	운교리	목현리	전국농촌평균
기준년도호당경지면적	0.46ha	0.82ha	0.80ha	0.94ha
현농가호당경지면적	0.75ha	1.06ha	0.97ha	1.26ha
농가경지소유권	매우낮음	대체로높음	높음	N A
주요생산소득기반	선린촌(%)	운교리(%)	목현리(%)	N A
농작물생산소득	2(8.0)	39(47.6)	9(7.4)	N A
축산물생산소득	10(40.0)	11(13.4)	16(13.2)	N A
비농업소득	12(48.0)	28(34.1)	95(78.5)	N A

주 : 1)기준년도는 1975, 1976년 수치이며 비교년도는 조사된 가구만의 응답결과에 기준
 자료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물통계연보; 농협중앙회, 농협연감, 1993; You, 전계서, 1986

(5) 農業勞動力構造와 營農關聯 接觸網 變化
 全般的으로 3個部落의 農業勞動力構造에서 나타나는 共通點은 專業農家 比率의 減少와 비농가의 增加, 農家口員數의 減少, 子女들의 非農業職 進出擴大에 따른 夫婦中心의 영농

활동의 一般化, 農家口主의 高齡化와 女性化, 영농후계자 確保率의 絶對的 減少, 미약한 영농기계화 水準등 一般的인 韓國農村社會 農業勞動力構造上的 변화추세와 類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農家比率(農家人口 및 農家號數)의 漸進

의 감소는 農村地域의 出産力 감소에도 原因이 있지만 根本적으로는 家口單位別 또는 農家口의 子女들이나 靑中

年層에 의한 家口員의 個人別 移村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다.¹⁴⁰⁾

Table 31. 농업노동력 구조의 변화 비교

부락별/전국농가평균	선린촌		운교리		목현리		전국농촌평균
구 분	1975	1993	1975	1993	1975	1993	1993
전업농가비율(%)	86.5	48.0	88.9	69.5	76.9	23.1	NA
겸업농가비율	13.5	4.0	N.A	17.1	N.A	4.1	NA
비농가비율	0	48.0	11.1	13.4	23.1	72.7	NA
농업종사/영농참여율	선린촌		운교리		목현리		전국농가평균
조사농가구수(호)	13		71		33		1,641천
농가구원수(명)	68		202		137		5,707천
영농종사자수	33		126		63		3,495천
호당평균영농종사자수	2.54		1.77		1.91		2.13
영농참여율(%)	48.5		62.4		45.3		61.2
영농후계자확보율(%)	7.7		8.5		12.1		-
영농기계화수준	매우낮음		보통		낮음		보통
고용노동력이용수준	낮음		낮음		낮음		낮음

주 : 1)부락별 농업종사율 및 영농참여율 등의 수치는 1993년 현재 조사가구의 응답에 기초

2)목현리 경우 조사가구수의 한계로 부락 전체농가의 정확한 현황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자료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농협중앙회, 농협연감, 1993; You, 전계서, 1986

(6) 農業關聯 接觸網과 營農改善 熱意 變化

1970년대 農村指導所, 農協, 새마을홍보위원회 訪問이나 各種 農村指導教育事業에 자주 參與하고 신문이나 영농잡지, TV, 農業專門書籍등을 통해 營農技術이나 새로운 情報의 習得에 매우 積極的이었던 이들 3개부락 農家들의 영농관련기관과의 接觸水準과 熱意는 相對的으로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⁴¹⁾ 농촌지도소나 농축협이 主要 營農關聯 接觸機關으로 나타났고 특히하게 선린촌의 경우 肥料, 飼料, 藥品會社등에서 나온 販賣商과의 영농관련 相談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의 役割이 두드러지는 점은 注目된다. 營農情報傳達體系上的 差異로 선린촌의 경우 大部分 個人的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운교리는 指導子級 人士들, 목현리의 경우 營農關聯機關 指導子들의 役割이 두드러짐을 들 수 있는데 현 선린촌에서 指導力構造를 상실한 점, 운교리의 부락내 指導力構造의 存在, 목현리의 行政機關主導의 부락발전이 推進된 背景에 根本的인 原因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Table 32. 농업관련 접촉망과 영농개선 열의 비교

구 분	선린촌	운교리	목현리
주요접촉기관	양계조합, 농축협	농촌지도소, 농협	농촌지도소, 농축협
접촉수준	보통	보통	대체로 높음
주요영농자금융자기관	신용신용협동조합	농협	농협
주요영농상담대상자	가족, 판매상, 이웃	농촌지도사, 새마을지도자	이웃, 영농지도자
주요상담내용	융자, 판매가, 기술	융자, 가족사양	융자, 가족사양
농업전문서적보유율	낮음	매우낮음	매우낮음
영농정보전달체계	개인적	지도자급 인사	행정기관 영농지도자

(7) 部落共同體的 組織 및 指導力構造 變化

部落共同體的 協力組織이나 指導力構造의 變化상을 살펴 보면 3개부락 모두 都市化, 産業化 過程을 겪으면서 많은 差異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는데 가장 큰 變化는 선린촌에서 나타난다. 1970년대 初期 선린촌의 社會, 文化的 構造는 마을운영에 관한 모든 規則을 나타내는 마을規約의 存在, 높은 教育水準, 理想的 示範農村을 建設하고자 하는 全體住民의 開拓者의 精神과 宗教의 信仰心을 바탕으로 한 共同體의 일체감이나 協同精神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部落構成員上의 特性은 각종 부락공동체적 協力組織의 活性化와 住民共同體의 指導力構造의 形成에 결정적인 影響을 미친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部落會員 資格의 變更, 分村과 移村, 주변지역의 도시화등에 따른 住民構成員上의 變化는 공동체적 一體感의 弱화를 초래하여 현재 部落共同體의 協力組織은 거의 瓦解되면서 부락내 뚜렷한 指導力構造를 찾을 수 없게 된 근본원인으로 볼 수 있다. 운교리나 목현리의 경우에서와 같이 傳統的 農村社會에서 部落年長者가 갖던 指導力¹⁴²⁾은 상당히 미약해진 반면 單位部落에서 行政的 指導자로 볼 수 있는 里長의 社會的 指導力은 많이 強化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주민들의 指導力構造의 認識에 年齡과 經濟的地位와의 연관성을 보인 점은 특히 주목된다.¹⁴³⁾

Table 33. 공동체적 협력구조와 지도력구조 변화 비교

구 분	선린촌	운교리	목현리
기준년도 공동체적 협력조직	선린신협, 선린교회 소비, 구매, 판매조합	운교조합, 계, 친목회 새마을관련조직	새마을관련조직 두레, 산림계
비교년도 공동체적 협력조직	선린신용협동조합	운교새마을협업농	부녀회, 청년회
기준년 부락자치조직	마을운영위원회	운교조합운영위원회	새마을관련조직
비교년 부락자치조직	없 음	운교협업농위원회	새마을관련조직
기준년 지도력구조	마을운영위원회, 전체주민 주민공동체 중심	운교조합위원회중심 단일지도자 중심	부락연장자, 행정지도자
비교년 지도력구조	상 실	다 원 화	상 실
기준년 주요부락지도자	마을운영위원회, 전체주민	단일지도자(복태봉)	행정기관지도자
비교년 주요부락지도자	뚜렷한 지도자 없음	이장, 복태봉, 새마을지도자	이장, 영농지도자

(8) 住民意識構造 變化

産業化過程을 겪으면서 농민의 意識構造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全般的으로 農業, 農村의 將來에 대해 子女營農 承繼에 대한 絕對多數의 否定的 見解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당히 懷疑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¹⁴⁴⁾ 특히 선린촌의 경우 그린벨트 政策과 隣近地域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完工을 앞둔 상황과 관련하여 農家口들의 部落將來에 대한 불안감이 운교리나 목현리에 비해 相對的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調查對象部落의 農家口 중에서 주변여건의 急變으로 영농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農村移村意思를 밝힌 경우는 많지 않아 農業將來性에 대한 懷疑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社會的 移動이 활발히 進行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農村社會學的 觀點에서 1970년대 운교리가 지닌 特異한

점은 部落內 협동정신의 實踐家이며 理想主義자의 性格의 강력한 推進力을 지닌 指導자의 存在와 그와 함께 대다수 부락민을 중심으로 運籌되어 발전된 마을協同組合의 存在를 들 수 있다.¹⁴⁵⁾ 現在 부락공동체적 協力事業은 운교새마을 협업농을 통해 나름대로 相互扶助와 協동정신을 鼓吹하는 住民共同體의 役割을 수행하고 있는데 雲橋里가 善隣村이나 墨懸里 보다 共同體意識이 相對的으로 높은 것은 아직도 共同體의 協力組織이 존재함이 根本原因으로 보여져 주목된다. 현재 운교리의 指導力構造는 單一指導子 중심에서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락연장자등으로 多元化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져 상대적으로 지도력의 分散이 이루어졌고¹⁴⁶⁾ 목현리는 새마을운동의 沈滯와 함께 점차 共同體의 事業의 추진이나 指導力構造 역시 동시에 沈滯되는 變化를 보여 1970년대 새마을운동 추진시 行政機關에서 目標로 한 中堅指導

주의 육성이 結果的으로 活性化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34. 주민의식구조 비교

구 분	선린촌	운교리	목현리
농업, 농촌장래	대체로 회의적	회의적	회의적
부락장래(농가)	불안감, 불확실성	농가의 감소	농가의 감소
자녀영농승계	부정적	부정적	부정적
자녀교육열의	대체로 높음	대체로 높음	대체로 높음
주거환경 만족도	보통	대체로 만족	대체로 만족
여성의 사회활동	개방적, 적극적	보통	개방적, 적극적
부락변화의 주체	부락민 자신	부락지도자	일선행정기관

住居環境이나 生活水準에 대한 滿足度 역시 生活用品 普及率의 전반적인 增加에도 불구하고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絶對的 水準에서의 農村住民들의 삶의 여건은 過去에 비해 質的으로 向上되었지만 相對的 水準에서 도시와의 社會經濟的 發展隔差에 따른 疎外感和 敗北感을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住居環境의 變化나 改善 自體가 곧 주민들의 質的 生活滿足도와 全的인 相關關係를 갖는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주목된다. 住民意識構造에서 나타난 3개부락의 差異點으로 특히 注目되는 점은 '현 부락의 變化상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質問에 대한 應答으로 선린촌은 住民自身들, 운교리는 部落指導자들, 목현리는 政府行政機關을 각각 가장 많이 指摘한 것인데 이것은 部落發展推進主體別 類型的 區分과 밀접한 聯關關係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 注目되는 結果이다.

IV. 요약 및 결론

1. 要 約

부락이 位置한 地理的 立地上 都市近郊部落, 山間部落, 中間部落으로 구분되며, 部落發展推進主體上 住民共同體中心과 部落指導子中心의 上向式發展模型, 政府主導의 下向式發展模型으로 分類되는 각각의 特性을 가진 善隣村, 雲橋里, 墨懸里 등 3個 單位部落이 지난 20여년간 나타난 變化樣相은 韓國社會의 급속한 都市產業化로의 轉換過程을 통해 農村社會는 全般的으로 많은 變化를 隋伴할 수 밖에 없는 劣惡한 狀況에 처해 있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各 部落別

變動要因에 따른 變化상은 여러가지 면에서 相異한 差異를 보여 上記한 單位부락의 諸般特性들은 各各의 變化樣態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單位部落의 變動은 크게 部內的要因과 外的要因에 의한 결과로 볼때¹⁴⁷⁾ 部落의 地理的 輿件과 行政機關의 政策이나 行政指導는 部內變화에 直接的인 영향을 끼친 主要 外的 變動要因으로 作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地理的 位置上 都市近郊村으로 볼 수 있는 선린촌이나 목현리와 같은 中間部落에서의 가장 큰 變化는 轉出入의 社會的 人口增減要因에 따른 非農家의 現存한 增加로 部內變化的인 生產構造가 非農 업위주로 變貌하는 등 農村社會의 特性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들 수 있고 山間部落인 운교리의 경우 선린촌과 목현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典型的인 農村社會의 特性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으나 青年層과 全體家口員의 大거 移村으로 因한 部落人口의 減少, 空家の 增加, 單身老齡 또는 老齡夫婦人口의 增加와 女性化 現狀, 勞動力構造의 劣惡化 등 農業人口의 都市移動에 따른 部內인구의 量的, 質的 變化가 두드러져 都市產業化와 單位部落의 地理的 輿件은 그 變化樣態에 있어 밀접한 聯關關係에 있음을 보여준다.¹⁴⁸⁾ 선린촌의 그린벨트 지역으로의 지정이나 목현리의 都農行政의 複合性 影響의 結果로 나타난 分村現狀이나 非農業人口의 急增現狀 등은 地理的 輿件과 함께 行政機關의 政策이나 行政指導가 單位部落의 社會的 變化에 決定的 役割을 하는 主要 外的 變動要因으로 作用함을 뒷바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全般的으로 好轉된 交通수단의 發達은 住民生活圈域을 확대시켜 목현리에서와 같이 首都圈의 衛星都市의 機能이 강화되어 非農業人口의 住居地用으로도 많이 이용되는 變化를 수반하였다.

부락구성원의 構造的變化 側面에서 特異한 점은 선린촌과 운교리에서 共通的으로 나타나는 農家の 감소를 통한 全體人口數의 감소와 달리 목현리는 人口 및 家口數에서 엄청난 量的膨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서울近郊에 위치하고 交通이 용이한 점, 觀光資源이 많은 특수성으로 隣近地域의 都市化가 급속히 進展된 점에 크게 起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共通的인 人口規模의 量的減少에도 불구하고 선린촌이 운교리와 다른 큰 差異點은 운교리가 우리나라의 一般的인 農村社會 變化狀과 거의 흡사한 消極的이고 他意的인 형태의 變化를 보인 반면 선린촌은 1970년대 周邊地域의 都市化가 활발히 추진되자 分村이란 形態를 통해 주민들 스스로의 決定에 의한 積極的이고 自意的인 變化를 보여주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限定된 土地나 子女教育, 住民間 經濟力의 差異深化, 子女教育問題, 部落構成員의 變化에 따른 理想村 建設 理念上的 葛藤등 여러 要因들이 複合的으로 작용한 결과이긴 하지만 선린촌의 이런 自律的인 變化는 草創期 대부분의 構成員들이 開拓者의 정신과 共同體의 意識이 매우 강한 特性을 지녔던 것과 상당한 聯關關係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分村의 終結과 함께 상당수 部落構成員의 交替가 이루어진 1970년대 末을 기점으로 점차 부락공동체적 性格이 약해지고 각종 共同體의 事業이 와해되면서 부락의 發展速度가 느려진 점은 주목되어 진다.¹⁴⁹⁾ 부락의 主要經濟生産活動과 관련하여 조사대상부락들이 共通的으로 보여준 農家人口의 減少와 農業勞動力의 質의 低下에 따른 農業勞動力構造上의 變化는 農業生産活動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農業人口의 移村과 轉出에 따른 農業勞動力의 不足과 質의 低下는 技術集約的 機械化營農을 통한 해결방안을 摸索할 수 있으나 農業機械의 보급확대는 農家經濟力의 相對的 低下로 인해 오히려 農家負債의 主要原因으로 作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營農機械化의 必要性에 대한 선린촌이나 운교리, 목현리 주민들의 認識은 전반적으로 높으나 農業, 農村, 部落 자체의 將來에 대한 불확실성과 不安感, 영농규모와 家口經濟力의 零細性에 起因하여 현상유지에 치중하는 消極的인 姿勢를 堅持하고 있는 것은 1970년대 영농기 계획에 대한 積極性을 보인 것과 큰 對照를 이룬다. 선린촌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都市近郊村으로 볼 수 있는 목현리의 경우 畜産業爲主의 農業生産構造를 갖고 있어 地域的 特性을 고려한 農業生産活動上의 變化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운교리의 경우 여전히 米穀中心의 生産構造를 維持하여 1970년대와 거의 變化를 보이지 않는데 政府의 物價安

定施策에 따른 低收買價格 水準은 선린촌이나 목현리에 비해 相對的으로 낮은 운교리 農家の 經濟的 零細性과 密接한 關係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營農規模上의 變化를 보면 3個 部落 모두 全國平均에 미치지 못한 現實은 1970년대 대비 農家經濟力의 低下로 연결되어졌고 상당한 農業人口의 減少에도 불구하고 영농규모상의 停滯를 보인 점은 이들 부락에 있어서의 土地의 外地人 占有化를 뒷바침하는데 이런 현상은 특히 現在 河南市에 속한 선린촌과 隣近地域의 비농업화가 급속히 進展되고 있는 목현리에서 두드러져 向後 이들 部落의 耕地利用構造는 운교리에 비해 훨씬 많은 變化를 가져올 것으로 展望된다. 결국 調查部落들의 영농규모상의 零細性은 自然히 農家經濟力의 相對的 惡化로 나타났고 農家負債面에서는 1970년대와의 差異點으로 목현리나 운교리의 경우는 대부분의 農家が 農協이나 畜協을 이용하며 선린촌은 부락내 善隣信用 協同組合을 이용하고 있어 過去 高利채등으로 높은 利率에 시달리던 어려움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農家負債의 主要原因은 3개부락 모두 農事關聯原因이 가장 많아 열악한 營農條件에서도 상당수의 農家口는 營農活動에 持續的인 投資를 해 온 것으로 볼 수 있어 注目되며 자녀교육비 역시 주요 負債要因으로 나타나 이들 부락의 父母들이 지녔던 높은 子女教育熱을 뒷바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都市産業化의 급속한 變換期를 통해 傳統的 農村社會의 文化나 價値觀 역시 큰 變化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어느 한 가지 特殊한 要因에 따른 現狀이기 보다 각 單位部落의 社會的 移動에 따른 部落構成員上의 변화, 農業, 農村의 相對的 低發展의 惡循環과 農業의 斜陽産業化 現實, 物質文化의 流入등 여러가지 複合的인 作用結果로 볼 수 있다.

全般的으로 調查對象 住民들이 나타낸 文化나 價値觀 및 意識構造 變化상의 共通點은 부락발전추진주체나 부락공동체적 求心點의 瓦解와 喪失에 따른 扶相助 協同精神의 減少, 個人主義的 性向의 增加, 農業 및 農村에 대한 懷疑와 危機感, 相對的 疎外感, 삶의 空間으로서의 魅力低下등 전반적으로 否定的인 側面을 많이 나타내어 침체한 우리 農業과 農村의 現實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草創期 信仰心과 開拓精神에 입각한 주민들의 높은 自律的力量이나 協同心, 共同體의 協力事業의 活性, 計劃的 空間構造利用등 우리나라의 一般的 農村部落과는 다른 여러 가지 농촌사회학적 特異性을 지녔던 선린촌은 分村의 擴散以後 부락공동체적 求心點의 喪失에 따른 協同精神의 減少와 함께 個人主義 性向이 뚜렷해진 반면 운교리의 경우 미

약하나마 새마을協業農 組織을 통해 住民共同體의 意識의 高揚과 각종 부락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相對的으로 '나 자신'보다는 '우리'라는 部락공동체 意識이 나름대로 維持되고 있음은 주목된다.

農家口의 農業, 農村 現實과 將來에 대한 높은 수준의 懷疑와 不安感은 子女들의 營農承繼에 대한 否定的 見解와 각종 營農指導教育 參與나 農業關聯機關과의 접촉에 있어 消極的인 態度¹⁹⁾를 보이는 것과도 直接的인 關聯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女性의 役割이나 社會的 活動에 대해서는 상당히 開放的인 態度를 보이면서도 아들의 딸에 대한 높은 教育水準 選好度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家族構造 및 部族構成員上의 變化와 世代間 教育水準의 隔差등에 따라 部族內 指導力構造 역시 변화하여 운교리나 묵현리의 경우에서 나타난 것처럼 部族內 年長者等 傳統的指導子의 役割은 退潮하는 반면 里長, 營農指導子, 새마을指導子等 外部機關이나 住民들과의 接觸이 잦으며 經濟力을 갖춘 中장년층이 단위부락에 있어 새로운 指導力을 形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뚜렷한 指導力構造를 찾을 수 없는 선린촌의 경우는 過去 全體住民이 指導子의 役割을 수행하던 것과는 對照를 이루는 것으로 1970년대 中盤의 分村 이후 善隣敎會나 善隣信用組合등이 地域社會中心으로 그 役割이나 機能이 확대되면서 점차 部族共同體의 特性이 사라진 것과 밀접한 關聯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 農民 개개인의 資質과 力量 向上을 위한 人的資源開發을 위한 教育의 필요성이 要求되는 變化상으로 볼 수 있다.

2. 結 論

政府主導의 經濟成長 手段으로 比較優位論의 觀點에서 선택된 工業優先開發戰略과 首都圈 中心의 大都市優先開發戰略의 結果로 나타난 韓國社會의 급속한 都市化와 產業化가 農村地域社會에 미친 影響은 실로 막대하며 全般的으로 그 變化상이 否定的인 樣相을 많이 보이고 있음은 意見을 달릴 理由가 없을 것이다. 물론 產業化의 過程을 통해 우리의 農村社會, 또는 單位農村部落이 어떻게 변화했고 또 변화하고 있는가의 물음에 대해서는 離農現狀, 農業生產構造, 勞動力構造, 文化環境이나 意識, 價值觀 變化등 多角的인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겠지만 結論的으로 傳統的인 農耕社會의 경제, 社會, 文化적 特性이 거의 사라지고 農村이 삶의 空間으로서의 價値를 잃고 있으며 最近의 國際化 開放化의 추세와 함께 農業의 位相은 더욱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農村, 農業分野의 相對的 發展隔差는 단위부락의 地理的位置上, 部族發展推進主體上, 住民構成員上의 區分등으로 각기 다른 特性을 가진 3個 部락의 調查結果 역시 크게 다를 바 없어 어떤 類型의 部落이든간에 單位農村部落은 產業社會化 過程에서 必然的으로 많은 變化를 同伴하게 됨을 알 수 있고 특히 都市化는 우리나라의 農村社會 變動像에 지대한 影響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 單位部落의 變化가 전반적으로 自律的인 것이기 보다는 大部分 周邊條件의 變化에 의한 他律的인 形態의 變化였음은 韓國社會 全般的 급속한 성장과 발전이 상당부분 農村地域住民의 희생과 어려움에 基礎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前述한 바와 같이 諸般 變動要因에 따라 이들 단위부락들이 보여준 變化樣態에 있어서의 差異點은 注目할 만 하며 이를 바탕으로 現時點에서 安定된 產業社會로의 發展을 위해 提起되고 있는 都農間, 農業工業間 開發隔差의 解消와 國際的 農業競爭力 提高를 위한 向後 農業 및 農村發展戰略 構想에 관한 다음과 같은 몇가지 方向提示를 하고자 한다.

첫째, 調查對象部落 주민들의 意識構造나 諸般 變化상에서 가장 주목되는 共通點은 이들에게 있어서 農村이 삶의 價値가 있는 居住空間으로서, 또한 農業이 가치있는 職業으로서의 認識이 매우 稀薄하다는 것으로 이런 否定的 認識이 갖는 深刻性은 이것이 상당히 一般化되고 固定化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런 現實은 韓國사회가 全般的인 均衡發展을 통한 先進產業社會로의 移行에 극히 否定的으로 作用할 것이 분명하다고 볼 때 新農政 5個年 事業이나 定住圈開發事業 등 農業과 農村地域發展을 위한 國家次元의 積極的인 政策支援이 보다 強化되어야 하는 當爲性과 必然性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선린촌과 묵현리가 나타난 變化에 큰 影響을 미친 主要 變動要因이 部락의 地理的位置나 地形 및 周邊環境條件등으로 볼 때 產業化時代에 적합한 새로운 農村定住體系의 合理的 育成을 위한 政府施策의 計劃이나 施策의 實踐은 이러한 요인들의 精密한 研究에 바탕을 두어 地域實情에 맞도록 推進되어야 하며 선린촌의 그린벨트 施策에 따른 否定的 結果에서 나타나듯 여하한 定住圈開發施策도 地域住民들의 共同的 權益保護가 優先이 되어야만 이들의 積極的인 參與를 誘導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선린촌의 分村에 決定的인 影響을 끼친 要因 중의 하나가 部落의 限定된 土地規模였음을 볼 때 部族설립단계에서 未來의 社會的 變化에 대한 計劃과 對應策의 準備가

부족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아무리 部落設立上의 理想이 훌륭하거나 부락민의 協同精神이 높다 하더라도 短期的 眼目에서의 部落發展計劃은 어떤 경우에도 持續的인 成長 發展效果를 기대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로 認識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中 長期的 發展對策의 講究를 위해 부락지도자층은 地域社會 關聯機關과의 계속적인 情報交換을 통한 긴밀한 協助體制를 유지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政府施策 역시 未來指向의 觀點에서 地域住民과의 協議에 의한 相互尊重과 協助意識 속에서 計劃되고 實行되어야 할 것이다.

네째, 農家の 農業生産活動은 1次的으로 耕地整理와 같은 農業生産基盤의 整備狀態, 農業勞動力構造, 營農技術과 生産物 價格水準등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며 2次的으로는 農民 個個人的 資質과 熱意, 生産活動上의 共同體의 協力體系 등의 個人的, 社會的 變因들과 關聯을 갖게 된다. 지난 30여년간 農業生産基盤이나 營農技術水準의 向上은 어느정도 이루어졌고 農產物 價格의 調整은 실질적으로 개개 農家の 管理領域 밖으로 看做할 때 3個 조사대상부락이 共通的으로 보여준 農家人口의 減少와 農業勞動力의 質의 低下에 따른 農業勞動力構造上의 변화가 農業生産活動과 관련된 가장 큰 懸案 問題點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營農機械化를 통한 農業生産效率性의 增大를 우선적으로 提示할 수 있지만 意識있는 營農後繼者나 農民의 育成이 절대적인 前提條件임을 重視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耕地規模의 零細에도 불구하고 선린촌과 운교리가 1970년대 상당한 發展을 꾀할 수 있었던 것은 住民間의 높은 共同體 意識이나 開拓者 精神과 協同精神, 높은 教育水準, 강력한 指導力의 존재에 起因한 것으로 그 發展原動力이 바로 農民 個個人과 部落構成員의 能動的이고 自律的인 力量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向後 우리나라의 全般的인 農業과 農村關聯 각종 指導教育事業의 優先順位는 作目中心 生産增大爲主의 物質物量的 触点에서 耕作規模의 規模化, 定型化와 함께 販賣, 流通을 포함한 所得增大와 福祉增進에 符合함과 동시에 未來의 高度産業化 情報化 時代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上向式發展模型 中心의 개개 農民과 農家の 自律的 力量과 指導力 向上을 위한 人的資源開發中心으로의 方向轉換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 용 문 헌

- 1) 최양부, 이정환(1987:4)은 대도시 중심 성장거점개발전략, 농촌간을 식량증산기지로 보는 기능주의적 인식, 도농을 분리시켜 보는 분리주의 인식과 전략의 총체적 결과로 보았다.
- 2) 이용만 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새마을운동 학술논문집 제16집, 1992:138.
- 3)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한 우리 농촌사회의 변화상에 대한 이해의 증진에는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나 단위부락의 특성에 따른 변화과정상의 특이성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여 연구방법론적 측면에서 하나의 중요한 변인을 간과해 왔다 할 수 있다.
- 4) 부락의 구분은 지리적위치, 인구규모, 환경요건 등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구분이 가능 할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취한 선정기준은 연구의 제한점으로 볼 수 있다.
- 5) You Tae Yeung, 「The patterns of Rural Development in KOREA, 1970's」, The Institute of SAEMAUL, Kon-Kuk Univ., Seoul, Korea, 1986.
- 6) 이 지역은 현재 서울의 길동 사거리 주변지역으로 당시 이들은 13,960 평의 국유지인 배밭을 불하받았고 농민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양계축산과 원예작물 재배로 생산기반을 다졌다.
- 7) 안희국(1974:2-3)에 의하면 부락명은 ‘유밀촌’, ‘계명촌’, 그리고 신약성서 누가복음 10장 25-37절 사화에 근거한 ‘선린촌’의 3가지 이름 가운데 주민회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선택하였다 한다.
- 8) 제 2 선린촌은 당시 ‘신장선린마을’ 또는 ‘동부선린촌’ 등의 이름으로 불려 지기도 했는데 본 연구에서 사례부락으로 일컫는 선린촌은 바로 이 제 2선린촌을 의미한다.
- 9) 1971년 廣州郡 草月面 大雙嶺里에 제3선린촌 設立을 시작으로 1974년 그린벨트지역으로 指定됨으로써 분촌은 더욱 가속화되어 1976년 利川郡 夫鉢面의 柯山里, 金浦郡 月串面 郡下里, 1977년 廣州郡 實村面 建業里등지로 擴散되어 나갔다.

- 10) 1967년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천현리에 속해 있던 제 2 선린촌은 1980년 동부면이 동부읍으로, 1989년 동부읍이 하남시로 승격 되어 현재 하남시 천현동의 일부로 포함 되어져 있다.
- 11) 하지만 등하교, 출퇴근시 버스들이 정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당수 주민들이 자녀들의 등교를 위해 자가용, 오토바이등의 개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12) 1993년 현재 농경지면적 18.86Km²은 1990년 대비 83.7%로 상당히 줄어든 수치인데 이는 하남시의 급속한 도시화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13) 1985년~1993년의 감소는 신중성(1985)과 본 연구간의 주민규정상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 조사에서는 설립 당시 마을경계선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만을 현 선린촌 주민으로 간주하였다.
- 14) 현재 12 비농가의 호당평균자녀수는 1.50명으로 농가 3.24명과 큰 차이를 보였다.
- 15) 한국사회지표(1993:50)에 의하면 노령화지수는 1970년 7.2에서 1980년 11.2, 1993년 22.0으로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 16) 홍동식 외(1983:132)는 농촌가족의 이상적선택형으로 핵가족(60%), 직계가족(38%)이라 밝혔는데 협소한 가옥규모와 부모와의 동거를 꺼리는 젊은세대들의 경향을 주요 이유로 보았다.
- 17) 통계청(1993:46-47)의 한국사회지표에 의하면 경기지역의 순이동율은 1970년 부터 지속적인 증가를 기록하였고 특히 1980-85년 동안 순이동율 13.0을 기록하여 인천을 제외한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낸 것과는 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18) 5명 가운데 초창기부터 양계관리인으로 취업하여 살고 있는 사람은 1사람 밖에 없고 나머지 4명은 최근 5년 이내에 전입해 온 사람들로 양계관리인의 변동이 빈번한 것으로 보인다.
- 19) 현재 대부분이 1,000평 이하의 소규모경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부락자체의 한정된 면적보다는 가구 경제력의 저하, 주변지가의 급속한 상승 등이 주요원인으로 보여진다.
- 20) 1993년 수치는 비농가를 포함하여 큰 의미는 없으나 주민간 토지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호당경지소유규모는 919평에서 1,493평으로 늘어났어야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함에서도 알 수 있다.
- 21) 당시로는 혁신적 양계사육 기술이라 할 수 있는 Cage System을 도입하는 등 상당한 수준에 있었고 1975년 가구당 약 4,000수(전체 18만수)로 규모 역시 매우 큰 편이었다.
- 22) 1975년 호당 평균 4,000수에서 현재 10,666수로 증가하였으나 실질적으로 3만수를 기르는 1가구를 제외한 5가구의 평균사육규모는 6,800수에 불과하다.
- 23) 현재 부락내 6개의 중소규모 공장이 있으나 주민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24) 선린촌의 높은 수입은 양계사업에 관한 기술집약적 영농활동과 부락공동체에 의한 효율적인 생산, 판매, 구매활동을 추진했던 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 역시 간과할 수 없다.
- 25) 농가구는 평균 소득의 76.8%를 지출하는 반면 비농가는 53.6%의 지출에 그쳐 오히려 비농가구들이 농가구들보다 상대적으로 저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26) 부채상환기관으로 동부선린협동조합으로 개칭된 부락신협은 현저히 준 (18.8%) 반면 농. 축협이 많아(50.0%) 이들 기관이 영농자금 융자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7) 신중성(1985:113-114)에 의하면 1985년 1차산업 종사가구가 54.5%(18/33)로 크게 줄어든 반면 1973년에 없던 3차산업 종사가구가 30.3%(10가구)로 늘어난 것으로 밝혔다.
- 28) 이들 가운데 단 1가구만이 부모님때 부터 살고 있어 대부분이 19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추진된 분촌현상 이후에 전입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 29) You(1986:101-102)는 마을운영위는 1970년 부락회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을 둔 마을 규약을 개정 인접농가를 회원으로 가입시켜 마을확장을 꾀하는등 부락발전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고 적고 있다.
- 30) 김성도의 증언(1993. 10. 17)에 의하면 초기 생산자 협동조합은 현재 서울. 경기 양계조합으로 발전하였는데 이 양계조합의 발전에 선린촌의 역할이 매우 컸던 것으로 밝혔다.
- 31) 현재 이 동부선린신용협동조합은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장학금 지급(1993년 16명), 효자. 효부상 시상, 불우이웃 돕기, 세시풍속 등 각종 교육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32) 申重盛(1985:107-108)은 宗教를 媒介로 하여 형성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信仰村落으로서 天主教의 迫害와 관련된 '教友村', 基督教 新興宗派와 연관된 '信仰村', 正統基督教 신앙중심의 '善隣村', 寺刹을 중심으로한 '寺下村'

- 지리산의 '靑鶴洞' 등을 들었다.
- 33) 초교과 무소속으로 존재하던 선린교회는 1978년 기독교 장로교에 가입하였다.
 - 34) 현재 이 교회의 회원자격은 선린촌 주민이 아니어도 가능하여 주변지역사회 주민의 숫자가 더욱 증가하고 있어 설립초기 주민의 신앙구심체로서의 역할은 점차 퇴색하여 가고 있다.
 - 35) 당시 아들에 대한 교육적 기대감이 더욱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현재도 유사하다.
 - 36) 1동 100평 3,000수 규모 기준으로 1967년 7개동을, 이듬해인 1968년에는 38동이 건립되었다.
 - 37)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에 위치한 경우를 제외한 축사에 인접해 있는 많은 가구의 생활환경은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만큼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
 - 38) 종교지도자를 지칭한 사람은 6명에 그쳐 현재 기독교를 믿는 가구가 14호(56.0%)나 되는 점에 비추어 기대 보다도 낮은 빈도인데 이는 곧 대부분의 주민들도 선린교회의 역할을 부락중심에서 점차 지역사회중심으로 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9) 현재 전체 농가 가운데 농업전문 신문이나 서적을 구독하는 가구는 2호(15.4%) 밖에 없고 농업관련 서적의 보유율도 매우 낮아 이 역시 부락 설립 초기 주민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 40) 부락장래에 대한 불안감은 비농가에서 보다는 주변지역의 급속한 도시화 현상으로 농업종사가구에서 특히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41) 공동체적 의식의 결여를 지적한 이 두명은 부락에서 오래 거주해온 지도자계층의 사람으로 볼 수 있어 아직도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부락발전에 공동체적 협동심이나 결속력을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져 주목된다.
 - 42) 일제시대 대산면으로 개편된 이후 지난 30여년간의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기간 많은 농촌부락들의 행정소재지가 변한 것과 달리 소재지상의 변동은 없었다.
 - 43) 운교마을 출생의 북 태봉씨로 운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추진과정에 큰 공헌을 했던 그는 현재도 운교리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락의 정신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 44) You(1986:120)에 의하면 1971년 까지 남원 등지로 갈 수 있는 교통편이 없었다.
 - 45) 홍경희(1990:61-97)는 촌락발생의 일반적 조건으로 물의 제약, 지형, 방어, 교통, 정치, 종교, 학술, 천연자원, 관광관계 등의 요인들을 들었다.
 - 46) 남원군 통계연보에 의한 대산면의 총가구수는 1983년 874호, 1988년 804호로 나타나 있는나 전. 출입에 따른 농가수의 지속적인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47) 이정환 외, "농촌생활환경 정비와 면 단위 정주권 개발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13, 1990:3.
 - 48) 현재 복서와 이씨가 많은 편이지만 혈연집단으로 구분될 만큼의 지배적인 성씨는 없다.
 - 49) You(1986)는 1975년 당시 단위 농촌 부락당 100가구 이상이 거주하고 있던 부락은 우리나라 농촌 부락 전체의 22.5% 밖에 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 50) You(1986:134)에 의하면 전체 부락민의 88.9%가 농가인 구였다.
 - 51) 1993년 12월 현재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한 조사결과는 139호 378명으로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단위부락에 대한 기초통계 수집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52) 취업 연령층에 있는 자녀들 가운데는 남원에서 직장을 가진 경우가 상당수 되며 대부분의 공공기관 직원들은 주거지를 운교리에 두지 않고 있어 이채롭다.
 - 53) 조사된 82호 중 무응답 5호를 제외한 77호만의 수치로 이를 평균치로 보기 어려우나 부락관련 인사들은 호당 약 2,000평 정도의 경지규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 54) 대산면 615호 농가의 영농규모는 호당평균 약 1.5ha로 대체적으로 영농규모가 큰데 운교리의 영농규모가 영세한 것은 부락의 지형적 위치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55) 71농가의 실제 경작경지면적은 훨씬 많은데 이는 상당부분 토지가 외지인에게 팔렸거나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이 전출해 감으로써 임대농(23.9%)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56) You(1986:123)는 1976년 당시 토지소유권 현황을 1966년과 비교하여 상당수의 토지소유규모가 늘어났음을 밝혔는데 이런 증가는 대부분 버려진 땅을 개간하여 가능했음을 지적하였다.
 - 5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연구보고서 14호, 1989:59.

- 58) 당시 고리채 이자율은 2-25% 정도로 부채상환 부담이 특히 높았다.
- 59) 가계비 중에서 교육비나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농가 부채의 큰 원인이 됨은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바 있다(이무근, 1991.; 설동훈, 1993; 김수욱, 1992).
- 60) You(1986:134-135)의 조사에 의하면 1976년 14세이상의 인구 가운데 사무직, 교육자, 상인 등 비농업 직업을 가진 사람이 40명(11.1%)으로 겸업농가도 상당수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61) 비농가 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의 한정된 조사가구수에 따른 결과로 보여지며 실질적으로 지도자급 인사들도 20.0% 정도는 비농가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62) You(1986:127)는 이때만 해도 운교리에 머슴들이 있었다고 밝혔고 고용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시기는 농작물 파종시와 수확기 등이었다.
- 63) 고용노동력의 이용은 대부분이 기계노동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64) 대산면은 현재 8개 법정리와 15개 행정리에 40개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 65) 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연구보고 14호, 1989:75.
- 66) 부락내 주요사업 계획의 결정방법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52명, 63.4%)이 주민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고 지도자들만의 회의를 통해 결정 된다는 11명(13.4%)에 불과하였다.
- 67) 북태봉(1990)에 의하면 1958년 6월 운교리와 수덕리를 중심으로 조합원 93명으로 발족한 운교리조합은 1959년 수덕리와 분리 운교리 전 농가를 조합원으로 재 발족하였다.
- 68) 조합공동답은 1,370평에 이르렀는데 규약을 제정하여 공동경작, 공동수익, 공동목적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일반 단위농촌에서는 보기 드문 주민공동체적 사업으로 볼 수 있다.
- 69) 대산면 단위조합은 1990년 2월 남원군 농협조합으로 흡수 합병되어졌다.
- 70) 1970년대 조합원만으로 공동경작으로 운영되던 밤나무 단지, 점포, 농경지등이 현재 모두 개인에게 임대해 주고 있고 공동답경작도 개인이 경작하여 수확량의 30%를 협업농에 주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 71) 1973년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건평 30평 규모로 개장되었는데 농번기에는 공동취사를 하여 식당으로 사용되었고 고 이외 예식장 등으로 사용되었다.
- 72) You(1986:137-138)는 주민의 61.1%가 농협조합농업기술보급소)이나 농촌지도소 등과 최소한 한달에 1번의 접촉을 가졌고 농업기술상담(75.0%), 용자문제(13.0%) 등이 주요접촉 이유였으며 대부분 년간 1회 이상 영농지도교육에 참여하였다고 밝혔다.
- 73) 남원군 농협조합에서는 농협지도자교육, 하계농촌지도자교육, 해외연수교육, 농업경영 기술지원단교육, 새농민 기술대학 등의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 74)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높은 교육열은 결과적으로 자녀들의 비농업 분야로의 취업을 통한 사회적 이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75) 운교리에 있어서의 전기보급은 경종작물 위주의 생산구조로 인해 농업생산 활동에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볼 수 없지만 주민 생활 양태에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 76) 이를 통해 버스노선의 개통이 이루어졌는데 버스노선의 개통은 남원과의 공간적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주민생활 양태의 변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77) 대산면 현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마을사업은 민간통행 편의권역 형성을 위한 운교리와 사매-서도간 도로 확포장사업, 경지정리사업, 소류지보수공사, 면진입로 포장 및 교량확장공사 등이 있다.
- 78) You는 1976년 당시 운교리의 문화생활용품 보유율은 전체 155가구 중에서 52호가 T. V, 60호가 전화를 보유하고 있을 만큼 타 농가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혔다.
- 79) 반면 낮은 실내욕조 보유율(34.1%)이나 개량식 화장실의 보유율(39.0%)로 보아 전반적인 가구별 주거환경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 80) 내과와 치과의 2개 부서가 있고 군수련의 2명, 간호사 1명, 취위생사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로 응급처치나 정기검진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 81) 사업상의 손님 접대나 친목도모 공간의 미흡등을 이유로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주민들의 대부분은 청·중년층으로 긍정적으로 여기는 대부분의 장년층과 노년층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 82) 현재 자녀 중 영농후계자를 확보하고 있는 농가는 6호(8.5%)에 불과하다.
- 83) 이들 대부분은 자녀교육 또는 자녀들과의 합류를 위해 서울이나 전주 등지로 이주할 것으로 밝혔고 일부는 직

- 업전환이나 직장의 이동에 따른 이주요인도 있다.
- 84) 최근의 UR 협상결과 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일선행정관리나 정부 농업정책을 제반변화상의 주체로 보지 않음은 특기할 만 한데 이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과거 운교협업농운영, 새마을사업 등의 각종 부락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 85) 부락의 연장자를 지도자로 인식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50대 이상의 장노년층이며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부락내 지적인 사람들은 30~40대의 연령층이 대부분이다.
 - 86) 부락연장자로 응답한 이들은 여전히 복태봉씨를 중요한 지도자로 여기고 있다.
 - 87)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지칭한 사람들도 부락연장자에 대해 지도자로서의 인식을 갖고 있어 대다수 주민들에게 이들은 정신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88) 고려시대 양주군에 속하였고 1980년 남양주군 화도면으로 편입되었으며 1991년 화도면이 화도읍으로 승격되어 주변지역의 급속한 팽창과 함께 행정적 소재지가 수차례 변화였다.
 - 89) 1972년 당시 각 도에서 1개 부락씩 총 9개 새마을시범 부락이 선정되었는데 목현리는 경기도의 시범부락으로 선정되었다.
 - 90) You(1986:185)는 1976년 당시 서울-춘천을 연결하는 버스가 5분 간격으로 마을 앞을 지나 다녔으며 버스로 서울 까지 약 40분이 소요되었다고 밝혔다.
 - 91) 그러나 부락안 까지 시내버스의 운행이 하루 1-2회에 거쳐 읍소재지(흔히 마석우리로 불려짐)로의 이동요건은 매우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92) 남양주군 전체로 보면 농가 비율이 14.5%로 화도읍에 비해 더욱 낮아 군 전체지역의 도시적 기능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대변하고 있다.
 - 93) 그외 구씨(7가구), 유씨(5가구), 양, 박, 신, 최씨 등이 각 3가구, 기타 28가구 등이었다.
 - 94) 1992년 화도읍의 행정리 분리계획에 의거 목현 1, 2, 3리로 구분됨.
 - 95) 현재 1,341세대 4,020명이 거주하여 호당평균인원 3.0명으로 2.6명의 감소를 보여 목현리 인구증가는 가구수의 증가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 96) 1994년 1월 현재 화도읍의 거주자 세대별명부에 의하면 목현리는 총 1,234세대가 살고 있어 이중 121세대만의 조사결과를 가지고 전체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을 밝힌다.
 - 97) You(1986)에 조사에 의하면 1975년 주요생산물은 쌀 806톤, 보리 23톤, 감자 1,730톤, 채소류 2,000톤, 한우 85마리, 젖소 30마리, 돼지 및 양 각 15마리 등으로 다양하였다.
 - 98) 당시 田 소유가구는 대부분 1,500-2,000평,奮은 1,000~1,500평 규모였다.
 - 99) You(1986:207)는 1975년 조사 당시 목현리 주민의 토지 소유 정도를 10년전인 1966년과 비교하여 일부 주민들의 토지소유 규모가 늘어났음을 밝혔다.
 - 100) 화도읍 통계에 의하면 1993년 현재 관내에 섬유, 금속기계, 목재, 비금속, 화학, 식품, 고무피혁 등의 관련 소규모 공장이 282개소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101) You, 1986, 상계서, p. 123, 128 참고.
 - 102) 화도읍 주택통계조사표에 의하면 1991년 12월 당시 목현 1,2리 농가수는 각각 82호, 49호로 집계되었고 1993년의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고 이장이나 부락관계자들에 의하면 농가는 약 120호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103) 일부 농가와 비농가 만의 조사결과여서 부락전체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104) You(1986:211)는 400일 이상 고용노동력을 이용한 2가구의 경우는 머슴들이 있었을 가능성을 지적하였고 고용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시기는 농작물 파종시와 벼 수확기 등이었다.
 - 105) 화도읍은 1993년 현재 10개 법정리, 28개 행정리, 48개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 106) 주요사업계획 결정방법에 대한 설문조사에 주민회의를 통해(38명, 31.4%), 지도자만의 회의를 통해(21명, 17.4%) 결정된다고 응답하였고 상당수 비농가는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여 비농가의 부락공동사업 참여도는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 107) 부녀회나 청년회 등을 통한 마을환경정비사업, 불우이웃돕기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체 부락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체적 사업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 108) You(1986:224-225)는 모든 농가가 농촌지도소등과 최소한달에 1번의 접촉을 가졌고 농업기술, 가축사양 관련 상담과 용자등이 주요접촉 이유였으며 대부분 년 1회 이상 영농교육에 참여하였다고 밝혔다.
 - 109) 현재 농가의 농업관련서적 보유수나 신문구독을 역시

-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110) 실질적으로 농가구주와 부인들의 교육수준은 33가구주 중 11명(33.3%)만이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 비농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111) You(1986:228)는 당시의 일반적인 아들에 대한 교육선호성은 묵현리도 마찬가지로였음을 밝혔다.
 - 112) You(1986:190)는 당시 묵현리가 道새마을시범부락으로 선정된 배경은 크게 3가지로 도로변 및 철로변에 위치하여 전신효과가 클 수 있는 점, 천마산 등 자연자원이 풍부하여 관광산업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여건이 좋은 점, 그리고 부락의 지도력구조나 응집성 등을 들었다.
 - 113) 2,492m의 마을안길 공사, 50평의 공동작업장 외 공중목욕탕, 공동세탁소, 마을운동장, 기계수리소, 3개의 다리, 전기공급시설, 메탄가스보급설, 관개수로정비 등이 이루어졌다.
 - 114) 묵현리의 새마을사업은 3월 부터 5월 사이의 단기간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3개월간 각종사업 추진을 위해 총 90.6백만원 중 50.8백만원을 정부기관이 투자하였다.
 - 115) 이들 사업 역시 전적으로 행정기관에 의해 계획되고 추진되어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으며 주민참여도 역시 낮은 상태로 진행되어졌다고 한다.
 - 116)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결과는 You(1986:228)의 조사결과와 유사한데 당시의 주요원인은 비농업직 종사나 교육을 위해, 나은 미래를 위해, 경지 부족 등이었다.
 - 117)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18가구는 농가 2호, 비농가 16호로 향후 주민구성의 변화는 비농가에 의해 더욱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 118) 농가구 역시 토지규모에 대해서는 큰 문제로 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주로 유우를 중심으로 한 축산농가가 많아 큰 규모의 토지를 필요치 않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 119) You(1986:231)는 당시 동족부락으로서의 특성이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이씨 가문이 지도력을 잡아 부락 응집력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 120) You(1986:233)는 젊은 연령층의 이들 중간지도자들의 지도력은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밝혔고 이들의 지도력 강화가 부락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121) 이장을 지직한 사람은 농가와 비농가의 구분이 없었으나 영농지도자를 부락지도자로 응답한 이들은 모두 농가구였다.
 - 122) 류태영(1984)은 주민공동체 또는 부락지도자들에 의해 부락개발이 추진되는 이런 상향식모델은 주로 선진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델이며 특히 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들었다.
 - 123) 상향식 부락발전모형은 선린촌과 같이 전체 주민이 스스로 단결하고 협동하여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부락발전을 추진하는 것과 운교리의 경우처럼 부락내 유능한 지도자의 열의와 능력을 바탕으로 주민단합을 통해 발전을 추진하는 형태등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124) 홍경희, 촌락지리학, 전계서, 1985:131.
 - 125) 이정환외, "농촌 생활환경 정비와 면 단위 정주권 개발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13호, 1990:5-6.
 - 126) 초기 마을규약에는 신규회원 조건, 가입절차, 권리, 책임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런 강령과 규약은 부락구성원의 일체감과 결속력을 강화시켜 이상촌건설의 밑거름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127) 계획적으로 설립된 농촌부락의 대표적 형태로는 소련의 콜호즈(Kolkhoz)와 소포즈(Sovkhoz), 이스라엘의 키브츠(Kibbutz)등을 들 수 있지만 이들은 농업 정책에 의해 정부에서 설계된 계획적 촌락이라 볼 수 있으므로 선린촌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128) 전체 부락민 중심의 이동단위조합으로서의 운교조합이 면단위조합으로 합병 됨으로써 부락공동체적 경제협력조직이 인접 지역사회 중심으로 그 범위와 기능이 확대되어 지역사회발전에는 기여했다 볼 수 있지만 운교주민들의 공동체적 협동정신은 오히려 감소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 129) 정지웅, "농촌지역사회개발," 농촌농업교육의 방향, 교육과학사, 1991:196.
 - 130) 한국사회지표(1993:50)에 의하면 노령화지수는 1970년 7.2에서 1980년 11.2, 1993년 22.0으로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비록 농촌지역의 고령화 현상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나 경제, 사회, 의료분야 등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발전에 따른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 131) 홍동식 외 2인, 농촌사회학, 法文事, 1983:131.
 - 132) Sanders (1977:2~3)는 각각의 농촌사회가 지닌 특수성으로 전형적인 농촌가족구조라 할 수 있는 유형을 기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다.
 - 133) 설동훈(1993:158)은 하나의 가족은 가구주의 연령증가에 따라 '형성기-확장기-확장완료기-축소기-축소완료기-해

체기의 과정을 통해 계속 변화함을 지적하였는데 운교리의 경우 상당수 가족유형이 축소기와 해체기 과정에 있어 묵현리나 선린촌에 비해 인구감소요인이 훨씬 명백함을 알 수 있다.

- 134) 1970년대 선린촌은 기술집약적 양계중심의 생산구조를 가졌고 구매, 생산, 판매를 각각 생산자조합, 소비자조합, 신용조합을 통해서, 운교리는 운교조합이나 운교협업농등의 주민공동체적 협력조직을 통해 영세한 경지규모에도 불구하고 높은 부락경계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주목해야 할 점으로 볼 수 있다.
- 135) 특히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매년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는데 농협통계(1993:68)에 의하면 92년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89.1%에 불과해 최초로 그 비율이 90%이하를 기록하였다.
- 136) 설동훈(1993:175)은 부채농가의 부채원인으로 농사비용(30.3%), 자녀교육비(21.2%), 농지, 농기계, 가축구입(18.6%), 생활비(14.8%)등의 순으로 밝혔다.
- 137) 김수욱(1992)에 의하면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GNP 성장율은 8.5%, 농림어업은 2.6% 인데 반해 광공업은 12.6%나 되며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에 차지하는 비율도 1970년 27%, 1980년 15%, 1989년 10%로 계속적인 감소를 보였으나 광공업 등 2차산업은 1970년 29%에서 1989년 44%에 달하였다.
- 138) 농림수산부통계(1993)에 의하면 가구당 농경지면적은 1975년 0.94ha, 1980년 1.02ha, 1985년 1.11ha, 1990년 1.19ha, 1992년 1.26ha로 지난 20여년간 약 0.32ha가 증가하였으나 경지이용율은 1975년 140.4%에서 1992년 1%로 오히려 크게 줄었다.
- 139) 高承濟(1977:419)도 그의 저서 '한국촌락사회사연구'에서 전통적으로 양계업이 도시근교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하였다.
- 140) 김홍주(1992:88)는 그의 농업노동력실태조사 연구에서 배진한(1978)과 이정환(1986)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1960~75년에는 영세소농 중심의 가구단위 이농이 전체의 68.2%를 차지하였고 1970년대 후반들어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가구원 이농이 활발해졌음을 지적하였다.
- 141) 농가주들이 외부 농업관련 기관이나 조직과의 접촉에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현상은 이미 그들이 영농에 관한 일정수준의 기술을 축적하고 있으며 부락장래나 농업장래가 희망적이지 못한 현실에서 지

금까지 해온 것을 그대로 현상유지 하는데 치중하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여진다.

- 142) 그러나 운교리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정신적 지도자로 인식되는 등 전통적으로 농촌사회에서 갖던 지도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143) 최재석(1975)은 근대적 농촌부락 지도자는 30~50대의 청장년층이 중심을 이루며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생활수준은 중상류층으로 경제적 여건이 부락내 권력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등 현재 과거 전통적 지도자의 역할이 약화되는 단계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 144) 김수욱(1992)은 농민의식구조 변화 분석을 통해 1970년대 후반 농민의 40%가 '농업은 해볼 만한 직업'으로 긍정적 반응을 한 반면 80년대 후반 25%, 1990년 7.7%로 농업 만족도가 떨어졌음을 밝혔다.
- 145) 강력한 指導자의 존재와 마을조합의 발전은 相扶相助의 協司精神을 통한 주민의 一體感과 結束力을 강화시켰고 이것이 政府가 主導한 새마을운동과 연계되어 1970년대 운교리의 發展過程의 基盤이 되었다.
- 146) 실질적으로 이들 지도자 계층간의 알력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 147) 물론 각각의 내적, 외적 변동요인은 단위부락의 변화에 단일변동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변동요인은 상호연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148) 선린촌과 묵현리의 경우 공동적 변화로 볼 수 있는 행정구역상의 빈번한 변화는 단위부락의 변화에 있어 도시와 인접한 지리적특성이 가장 큰 변화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 149) 실질적으로 분촌되어 나간 여타 선린마을들의 현황은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들 분촌지역 선린마을들의 심층적 연구는 농촌사회 변화상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 150) 운교리의 경우 대부분의 농가주가가 고령이고 영농후계자 확보율도 낮은 현실에서도 외부 농업관련기관과의 접촉에 어느정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부락내에 면사무소, 농협지소등이 있어 접근이 용이하여 각종 정보획득이 쉬우며 협업농을 주축으로 마을총회등 전체주민간의 회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자연스럽게 농업관련 정보교환을 할 기회가 많은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참고 문헌

1. 고승제, 1977, 「한국 촌락사회사 연구」, 일지사.
2. 김성도, 1985, “선린촌의 공동체”, 전국농어촌교회지도자 수련회,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농어촌부, pp. 23~27.
3. 김수옥, 1992, “한국의 산업화와 농촌사회 변화,” 농자원 개발논문집 제 17 집(별책), 건국대학교부설 농업자원개발연구소.
4. 김홍주, 1992, “현대계 농업노동의 실태와 농민의 가족문제,” 「농촌사회」, 한국농촌사회 학회지 제 2 집, pp. 85~144.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993, “농협의 주변정세,” 93' 농협 연감, pp. 31~80.
6. 동부선린신용협동조합, 1993, “제 21 차 정기총회보고서,” 동부선린신용협동조합.
7. 류태영, 1984, “새마을운동과 농촌근대화: 단위취락사회 근대화를 중심으로,” 새마을연구 논문 제 3 집(별책), 건국대학교부설 새마을연구소.
8. 류태영, 이호진, 정찬길, 1980, “한국농촌의 취락구조개선을 위한 이스라엘의 협동농촌 (Moshav) 취락구조와의 비교연구,” 건국대학교부설 새마을연구소.
9. 변화순, 1993, “한국농촌가족의 구조와 기능변화,” 「농촌사회」, 한국농촌사회학회지 제 3 집, pp. 127~155.
10. 북태봉, 1990, 「구름다리 위에 피어오른 협동의 햇불」, 새농민·협업총서 1 호, 새농민사.
11. 선린협동촌위원회, 1974, “선린협동촌 현황,” 선린협동촌.
12. 선린협동촌운영위원회, 1974, “선린협동촌 제 1 호,” 선린협동촌.
13. 설동훈, 1991, “한국농촌의 가족구성고 생활실태,” 「농촌사회」, 한국농촌사회학회지 제 2 집, pp. 157~184.

14. 신중성, 1985, “동부선린촌의 형성과 특성,” 응용지리, 제 8 호, pp. 107~126.
15. 안희국, 1974, “선린마을 이름의 뜻,” 선린협동촌 제 1 호, pp. 2~3.
16. 이용만, 정철모, 박병현, 1992,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새마을운동 학술논문, 제 16 집, 전국대학새마을연구소연합회, pp. 137~173.
17. 이정환 외, 1991, “2000년대를 향한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구상: 시범마을 종합정비계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13, 25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8. 이정환 외, 1990, “농촌 생활환경 정비와 면단위 정주권 개발방안,” 연구보고 2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 청자용, 1994, “농촌지역사회개발,” 「농촌농업교육의 방향」, 교육과학사, pp. 194~235.
20. 최문환, 1979, “선린마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사랑의 모임 연설문.
21. 최양부, 이정환, 1987, 「산업사회의 농촌발전전략: 새로운 농촌지역 종합개발방식 선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2. 최재석, 1975, “농촌의 권력구조,” 「한국농촌사회연구」, 일지사, pp. 533~576.
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14호.
24. 홍경희, 1985, 「촌락지리학」, 법문사.
25. 홍동식, 강대기, 정지웅, 1983, 「농촌사회학」, 법문사.
26. Sanders I. T., 1977, 「Rural Societ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27. Tae Yeung You, 1986, 「The patterns of Rural Development in KOREA, 1970's」, The Institute of SAEMAUL, Kon-Kuk Univ., Seoul, Korea.
28. _____, 1986b, The Development Pattern from Both Above and Below, 건국대학교 새마을연구논문집, 제 5 집(별책), 건국대학교부설 새마을연구소.